

◆ 다양한 민족의 공화국
다게스탄 공화국
(Республика Дагестан)



장지호

목 차

- I. 다게스탄 종합 개관
 - 1. 개관
 - 1.1 지리적 위치
 - 1.2 일반 개황
 - 2. 자연 환경
 - 2.1 지리 및 지형
 - 2.2 기온 및 강수량
 - 3. 국가 상징
 - 3.1 국기
 - 3.2 국장
- II. 역사
- III. 정치
 - 1. 입법부
 - 2. 행정부
 - 3. 주요 행정 단위
 - 3.1 주요 도시
 - 4. 다게스탄 분쟁
- IV. 경제
 - 1. 경제 개관
 - 2. 평균 임금
 - 3. 주요 산업
 - 3.1 농업 및 식품공업
 - 3.2 공업
 - 3.3 교통
 - 4. 다게스탄 공화국 GRDP
 - 5. 무역
 - 6. 산업생산지수
- V. 사회·문화
 - 1. 인구 및 거주 현황
 - 2. 인구 및 민족 구성
 - 3. 교육
 - 4. 문화
 - 4.1 종교
 - 4.2 전통문화
 - 4.3 공예
 - 4.4 문화유적 시설
- VI. 다게스탄 주요 인물
- VII. 한국과의 관계
 - 1. 한국전 강제 노역지
 - 2. 우리나라 기업 진출
 - 3. 수력 발전소
 - 4. 한국 다게스탄 공화국 교류 협력
-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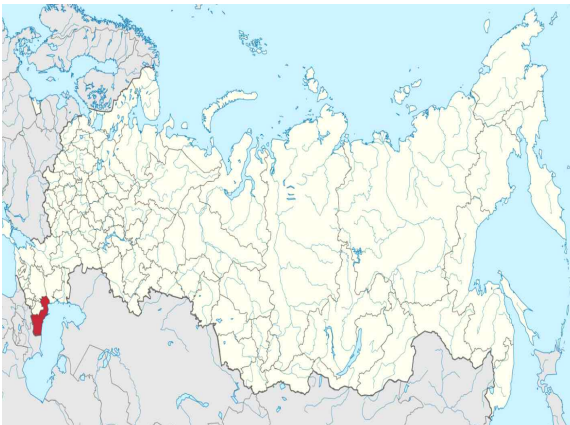
I. 종합개관

1. 개관

1.1 위치

다게스탄 공화국(Республика Дагестан)은 러시아 가장 남쪽 끝 지역이다. 공화국은 러시아 연방 남부 카스피 해 연안 서쪽 연안, 코카서스 북동부 위치에 자리잡고 있으며 정확한 위치는 동경 46°53', 북위 43°06'이다. 주의 면적은 50,300km² (러시아 연방 면적의 0.4%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의 약 세배)로 연방 내 52위를 차지한다. 그리고 다게스탄 공화국은 동쪽으로 카스피 해와 접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체첸 자치공화국과 러시아의 스타브로폴 지방, 북쪽으로는 칼미크 그리고 남쪽으로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와 접한다.¹⁾

[그림1] 다게스탄 위치²⁾



[그림2] 다게스탄 위치³⁾



1) “Глава Республики Дагестан <http://prd.e-dag.ru/respublika/2013-03-24-22-29-26>, www.wikipedia.org(최종검색일 2016.06.13.)

2) www.wikipedia.org (최종검색일 2016.06.13.)

3) <https://05.mvd.ru/news/item/2250015/> (최종검색일 2016.06.13.)

1.2 일반개황⁴⁾

국호	다게스탄 공화국 Республика Дагестан Republic of Daghestan
수도	마하치칼라(러시아어, Makhachkala)
연방관구	북카프카즈 관구
경제지구	북카프카즈 관구
면적	50,300 km ²
인구	3,232,200명(2024년 01월 기준) (북카프카즈 관구 내 1위 연방 내 55위)
민족구성	아바르(30.5%), 다르긴인(16.6%), 꾸르크인(15.9%), 레즈기인(13.3%) 등
종교	이슬람교
공용어	러시아어, 다수의 민족어
정부형태	공화제
대통령	세르게이 알리모비치 멜리코프 (Сергей Алимович Меликов 임기 2021년 10월 14일~)
의회	인민회의 (Народное собрание Республики Дагестан) 의장: 자우르 아세보비치 아스켄데롭 Заур Асегович Аскендеров
지역총생산(GRDP)	9,133억 루블(2023년 기준) (북카프카즈 관구 내 2위)
주요산업	농업, 수산업, 에너지·광업, 공업
주요도시	마하치칼라, 테르벤트, 키즐랴르, 이즈베르바시, 카스피스크
행정구성	10개의 시(Городской округ)와 41개의 자치군(Муниципальный район) ⁵⁾

4) 다게스탄 개관 <https://w.wiki/8ZP8>(최종 검색일 2025.05.10.)

5) https://ru.wikipedia.org/wiki/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_деление_Дагестана (최종 검색일 2025.05.10.)

2. 자연환경

2.1 지리 및 지형

지형

러시아의 연방관구중 하나인 남부 연방관구에 속하는 다게스탄 공화국은 카스피 해의 동쪽 부분에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점에 위치하며, 러시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남부의 지역은 대체로 카프카스 산지에 속하나, 동부지역에는 카스피 해안을 따라 좁은 해안평원이 위치한다. 해안평원 지역에 수도 마하치칼라를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형성되어있다. 북부 지역에는 건조한 노가이 평원이 위치한다. 최고점은 바자르두지 산으로 4466m이다. 총 1,800개의 강이 흐르며, 주요 강으로는 테렉, 술락, 사무르강이 있다. 6)

[그림3] 다게스탄 공화국 지도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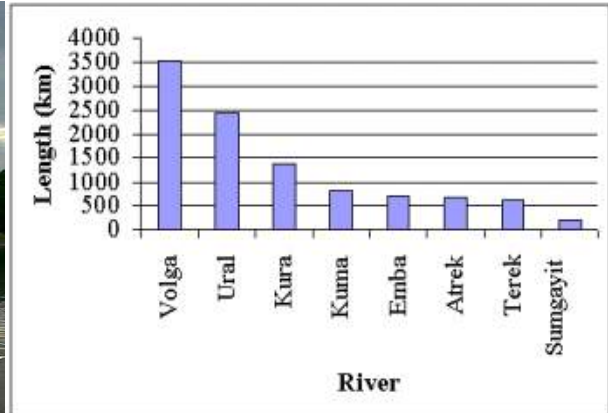
테렉강(Терек)

테렉 강은 북 카프카스의 주요 강 중 하나로, 전체 길이는 약 623km이고, 유역 면적은 43,200 km²이다. 이 강은 조지아(그루지야) 북부의 카즈베티 산(카즈베키 산, 해발 약 5,033m) 인근에서 발원하여, 러시아 연방을 지나 카스피 해로 흘러 들어간다. 카즈베티 산(카즈베키 산) 인근에서 발원한 테렉 강은 북쪽으로 흐르며, 북오세티야-알라니야 공화국의 블라디카프카스를 통과한 뒤, 카바르디노-발카르 공화국으로 들어간다. 이후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체첸 공화국과 다게스탄 공화국을 지나, 카스피 해로 흘러 들어간다. 하구에서는 약 100km 길이의 삼각주(델타)를 형성한다. 테렉 강은 북코카서스 지역의 농업, 식수, 수력발전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하구의 습지와 삼각주는 다양한 생태계와 어류의 산란장으로도 유명하다.8)

6) 다게스탄 개관 <https://w.wiki/8ZP8> (검색일 2025.06.08.)

7) <https://05.mvd.ru/news/item/2250015/> (최종검색일 2016.06.13.)

8) 테렉강 <https://w.wiki/8A5v>(검색일 2025.06.08.)



[그림4] 테렉 강의 모습⁹⁾

[그림5] 주요강 길이¹⁰⁾



[그림6] 테렉강 유역도¹¹⁾

6) https://ru.wikipedia.org/wiki/%D0%A2%D0%B5%D1%80%D0%B5%D0%BA#/media/File:%D0%A7%D0%B5%D1%87%D0%BD%D1%8F_%D1%80%D0%B5%D0%BA%D0%B0_%D0%A2%D0%B5%D1%80%D0%B5%D0%BA.jpg (최종검색일 2016.06.13.)

10) www.google.com (최종검색일 2016.06.13.)

11) 테렉강 유역도 그림 <https://w.wiki/8A5v> (검색일 2025.06.08.)

술락강(Сулак)

술락강은 다게스탄 공화국을 흐르는 강으로, 전체길이는 약 169km이며 유역면적은 15,200 km²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강이다. 이 강은 카스피해로 흘러들며, 다게스탄의 주요 도시인 마하치칼라시와 카스피스키시의 주요 수원 역할을 하며, 수력 발전에 널리 이용된다. 술락강 유역에는 다섯 개의 수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약 다섯 개의 발전소에서 총 1,345.6MW(메가와트)에 달한다. 술락강 하류에는 러시아 최대의 협곡 중 하나인 술락 협곡이 있으며, 강 유역의 풍부한 수자원은 농업, 식수, 산업용수 공급에도 활용된다. 12)



[그림7] 술락강 유역도13)

카프카스 산맥

다게스탄 공화국은 카프카스 산맥의 동쪽 끝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국가로서, 이 지역은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조지아 등 여러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다. 카프카스 산맥은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자연 경계선이기도 하며,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다. 이러한 카프카스 산맥이 위치한 나라로 다게스탄이 가지는 특징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14)



[그림 8] 카프카스 산맥 분포도15)

12) 술락강 <https://w.wiki/EQzW>(검색일 2025.06.08.)
 13) 술락강 유역도 그림 <https://w.wiki/EQzW> (검색일 2025.06.08.)
 14) Кавказ <https://w.wiki/BvM9> (검색일 2025.06.08.)
 15) 캅카스 산맥 분포도 <https://www.segye.com/newsView/20090109003213> (검색일 2025.06.08.)

1) 구니브 마을(Гуниб)

다게스탄 공화국의 구니브는 지형적으로 카프카스 산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표적인 고산 마을이다. 이 지역은 대카프카스 산맥의 남사면에서 갈라진 산악 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약 1,500~1,800미터 고도에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험준한 산악 지형, 절벽과 협곡으로 둘러싸인 자연 구조는 구니브의 역사, 사회,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가장 상징적인 예는 1859년 이맘 샤밀의 최후 항전지로서의 역할이다. 구니브는 당시 샤밀의 거점이자 러시아-카프카스 전쟁의 마지막 전투 무대였으며, 이는 단순히 전략적 위치 때문이 아니라 천연 요새와 같은 지리적 특성 덕분이었다. 카프카스 산맥의 깊은 협곡과 험준한 산세는 외부의 접근을 어렵게 했고, 이는 샤밀이 오랫동안 러시아 제국의 군대를 상대로 저항할 수 있었던 핵심 배경이었다. 실제로 러시아군의 진격이 어려워지고 병참이 끊기는 등 지형이 전쟁 양상에 영향을 준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지형은 지역 사회의 폐쇄성과 자급자족적인 전통 형성을 촉진했다. 구니브를 비롯한 다게스탄의 고산 마을들은 다른 지역과 교류가 적었고, 독자적인 민속 문화, 언어, 종교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이슬람 수니파 샤피이 학파가 깊게 자리잡은 배경도 산악 지형을 통한 종교적·문화적 자율성보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지형이 관광 산업 자원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카프카스 산맥의 절경, 협곡, 고산 기후 등은 등산, 트레킹, 생태관광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구니브는 그 중심지 중 하나로 간주된다. 동시에, 이러한 지형적 특수성은 여전히 인프라 부족, 경제 개발의 제약, 고립감 등 문제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결국, 구니브는 카프카스 산맥 지형의 역사적, 문화적, 군사적, 경제적 영향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마을이라 할 수 있다. 카프카스 산악 지형은 이 마을을 한때는 저항의 요새로, 지금은 전통과 자연이 살아있는 관광지로 만들어왔다. 16)



[그림9,10] 구니브 마을 전경¹⁷⁾

16) 구니브 마을 <https://w.wiki/BnLy> (검색일 2025.06.08.)

17) 구니브 마을 <https://w.wiki/BnLy> (검색일 2025.06.08.)

2.2 기후

다게스탄 공화국은 일반적으로 건조하고 대륙성 온대 기후를 가진다. 먼저, 다게스탄은 대륙성 기후를 가지고 있어 전반적으로 온화하고 건조한 편이다. 특히, 남부 산악 지역에서는 낮은 온도가 유지되며, 남쪽 해안 지역은 주로 아열대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공화국은 산악 부분의 고도에 따라 온도, 습도가 변화한다. 남쪽 해안 지역은 주로 아열대 기후이다. 대체적으로 여름에는 따뜻하며 건조하나, 남부 산악지역은 낮은 온도를 유지한다. 겨울철에는 1월 평균 기온이 저지대에서는 약 5도, 산간 지역에서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 겨울에는 대체적으로 비교적 기온이 낮다. 카스피해의 영향으로 따뜻함을 유지한다. 반면, 여름철에는 7월 평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며, 여름의 카스피해 수온은 최고 28°C까지 상승한다. 연간 강수량은 북부 스텝지역이 200mm이며, 남부의 산악지역은 800mm가량이다.¹⁸⁾

표 1 다게스탄 공화국 기후표(마하치칼라중심)¹⁹⁾

월	역대최저기온	평균최저기온	월 평균기온	평균최고기온	역대최고기온
1월	-25.1	-2.1	0.4	3.2	17.8
2월	-26.8	-1.4	0.9	3.5	24.5
3월	-13.5	1.7	4.6	7.2	28.8
4월	-5.1	7.3	10.3	14.1	33.5
5월	0.7	13.3	16.5	20.7	33.0
6월	5.7	18.3	21.4	25.7	37.8
7월	9.7	21.4	24.5	28.5	40.2
8월	9.0	20.5	23.9	27.6	38.7
9월	0.7	16.5	19.8	23.3	35.0
10월	-6.6	10.3	13.9	16.6	28.9
11월	-19.7	5.6	8.9	11.0	23.8
12월	-20.0	1.0	3.8	6.1	26.6

마하치칼라는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한 다게스탄 공화국의 수도로, 이 기후표는 연중 기온 변화의 폭과 평균적인 기상 조건을 보여준다.

18) 다게스탄 기후 <https://w.wiki/CeCw> (검색일 2025.06.08.)

19) [1] 기상자료개방포털. "기후통계분석:통계분석:조건별통계". [2] 위키백과. "마하치칼라". [3] 세계기상정보서비스(WWIS). "마하치칼라"

1) 온화한 겨울

겨울철(1월, 2월, 12월)의 평균 최저 기온이 영하 2.1℃에서 1.0℃사이로, 대부분 영하권에 들지 않거나 낮은 영하권에 머무는 것을 알 수 있다. 월 평균 기온 역시 0℃ 이상을 유지하여, 일반적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지 않는 비교적 온화한 겨울을 보낸다는 특징이 있다. 역대 최저 기온은 -26.8℃(2월)까지 기록된 적이 있어 극한의 추위도 올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다.

2) 쾌적하거나 더운 여름

여름철(6월, 7월, 8월)의 평균 최고 기온은 25.7℃에서 28.5℃사이로, 쾌적하고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된다. 월 평균 기온도 21.4℃에서 24.5℃를 기록하여 따뜻한 여름 날씨를 보인다. 특히 7월과 8월의 역대 최고 기온이 각각 40.2℃, 38.7℃까지 올라간 기록이 있어, 때때로 매우 더운 날씨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카스피해 연안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남부 러시아의 기후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3) 뚜렷한 사계절 변화

월 평균 기온의 변화를 살펴보면, 1월의 0.4℃에서 7월의 24.5℃까지 약 24℃의 큰 폭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마하치칼라가 뚜렷한 사계절 변화를 겪는 지역임을 시사한다. 봄(3월~5월)과 가을(9월~11월)에는 평균 기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며, 각각 활동하기 좋은 온화한 날씨를 제공한다.

4) 기온의 일교차

월별 평균 최저 기온과 평균 최고 기온의 차이를 보면, 비교적 큰 일교차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봄과 가을에는 일교차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이는 내륙에 가까운 카스피해 연안 지역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마하치칼라는 카스피해의 영향을 받아 겨울철이 비교적 온화하며, 여름철에는 쾌적하거나 때때로 더운 날씨를 보이는 뚜렷한 사계절 기후를 가지고 있다. 연중 기온 변화의 폭이 크지만, 극한의 기온보다는 평균적으로 안정적인 기후 조건을 유지하고 있음을 이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공화국기/ 공화국 문장



[그림11] 다게스탄 국기²⁰⁾



[그림12] 다게스탄 문장²¹⁾

3.1. 국기

2003년 11월 19일에 승인되었다. 국기는 가로로 세 개의 뚜렷한 색상 띠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위에 초록색은 생명과 땅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며, 동시에 다게스탄 국민 대다수가 믿는 이슬람 전통의 중요한 색깔을 나타낸다. 파란색은 다게스탄의 서쪽 경계를 따라 길게 펼쳐진 카스피 해를 상징한다. 다게스탄 민족의 아름다움과 그들이 지닌 위대함을 함께 나타내는 색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아래쪽 빨간색은 다게스탄 국민들이 추구하는 인간 정신의 굳건하고 불굴의 힘을 상징한다. 또한,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곳곳하게 살아온 다게스탄 민족의 용기와 과감한 기상을 나타내는 색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²²⁾

3.2.공화국 문장

1994년 10월 20일 다게스탄 공화국 의회에서 채택하였다. 국장의 중앙에는 황금 독수리의 모습이 인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다게스탄 국장에 등장하는 이 황금 독수리는 국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미래를 꿰뚫어 보는 지혜를 나타낸다. 또한, 따뜻한 마음으로 국민을 보듬는 지도자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다게스탄 국민들은 독수리를 동물 세계 내 존경받는 대표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국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장 하단에는 두 사람이 굳게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이는 다게스탄 사람들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국가적 자부심과 더불어 외부 세계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환대의 정신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양은 예로부터 생명의 근원이자 긍정적인 에너지의 상징으로 여겨 왔다. 다게스탄 국장의 태양 역시 삶의 긍정적인 측면과 끊임 없는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장 하단에 눈 덮인 아름다운 산봉우리와 넓은 평원, 그리고 푸른 바다의 모습이 함께 묘사되어 있다. 이는 다게스탄의 다채롭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풍요로운 땅에서 살아가는 다게스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나타낸다. ²³⁾

20)다게스탄 공화국 <http://president.e-dag.ru/respublika/2013-03-24-22-53-33>

21)다게스탄 공화국 공화국기
<http://president.e-dag.ru/respublika/2013-03-24-22-53-33>(최종검색일 2016.06.13.)

22) 다게스탄 국기 <https://w.wiki/DVqo>

23) 다게스탄 문장 <https://w.wiki/CseQ>

II. 역사²⁴⁾

1) 고대 정착과 초기 문명

다게스탄 산악 지대에는 고대부터 수많은 종족 집단이 정착해 살아왔다. 이들 중 일부는 기원전 10세기 이전부터 거주해왔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존재한다. 기원전 8세기경, 앗수르왕 샤희르콘 2세에 의해 쫓겨난 사람들이 북카프카스 산악 지대로 이주해 왔다는 기록도 있다. 기원 5세기부터는 다게스탄 지역이 카프카스 알바니아의 일부로 편입되었으며, 이후 비잔틴 제국 시기에는 제국 내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도 있었다.

2) 이슬람의 도래와 중세의 지배

7세기, 다게스탄은 아랍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이슬람이 전래되었고, 이는 다게스탄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후 10세기부터는 셀주크 튀르크의 영향권에 들었다. 8세기 무렵, 하자르 왕국에 의해 쫓겨난 사람들이 이 지역 산악지대로 유입되면서 다양한 고대 문화가 혼재하게 되었다. 10세기 이후에는 셀주크 튀르크, 그리고 13세기에는 몽골 제국과 킵차크 칸국(금호르드)의 지배를 받았다. 이 금호르드는 오늘날 노가이인(Nogai)의 조상으로 여겨진다.

3) 근세: 오스만과 페르시아의 각축장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다게스탄은 오스만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권 아래 놓였다. 이 시기는 각 제국이 이 지역의 지배권을 놓고 다투며 번갈아 지배한 시기였다.

4) 러시아 제국의 확장과 이맘 샤밀의 저항

19세기 초, 러시아-페르시아 전쟁(1804~1813) 이후 굴리스탄 조약과 투르크멘차이 조약을 통해 다게스탄은 러시아 제국에 공식적으로 할양되었다. 이후 1834년부터 1859년까지, 이맘 샤밀(Imam Shamil)이 이끄는 무슬림 이맘국이 러시아 제국에 맞서 격렬한 무장저항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859년 샤밀의 체포로 저항은 종식되었다.

19세기 말~20세기 초, 러시아 제국의 탄압과 오스만 제국으로서의 강제 이주가 진행되었으며, 수백만 명이 희생되거나 유배당했다. 러시아인과 기독교인의 지속적인 이주 정책은 이 지역의 종족 균형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5) 소비에트 시대와 이주 정책

1917년, 다게스탄은 인구셰티야-체첸과 함께 '북캅카스 산악 주민 연합국'을 일시적으로 형성했다. 1921년, 다게스탄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DASSR)이 공식 선포되며 소련 체제에 편입되었다. 이후 종족 간 권력과 자원 배분은 매우 복잡한 체계를 이루었다. 1930년대에는 39,000여 가정이 강제로 콜호즈(집단 농장)로 이주당했으며, 1944년에는 DIE 18,000가정이 강제 재정착되었다. 1960년~70년대에는 정부가 산악 지역 주민들을 평지에 정착시키는 정책을 강행했으며, 이는 자원 부족과 직업 문제, 나아가 농경 종족 간의 긴장을 유발했다.

24) 다게스탄 역사 <https://w.wiki/CHAN>

6) 탈소련기와 민족주의의 부상

1990~91년, 다게스탄에서 국가 주권 선언 운동이 일어났으며, 1991년 4월에는 54개 소련 공화국 중 39개국이 다게스탄의 주권을 지지하기도 했다. 1990년, '카프카스 산악 민족 연합회'가 창설되어, 러시아 제국주의로 인해 인위적으로 나뉜 지역들을 다시 통합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해당 단체는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은 행사하지 못했다.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는 1980년대 후반에 촉발된 민족주의 운동이 더욱 강화되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7) 현대 다게스탄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다게스탄은 러시아 연방 내의 공화국으로 재편되었다. 다양한 민족과 종교, 역사적 배경이 공존하는 다게스탄은 오늘날에도 민족 간 조화, 자치, 안보 등의 문제를 놓고 복잡한 정치적 역학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



[그림13] 투르크멘차이 조약 서명식²⁵⁾



[그림14] 이맘 샤밀의 ²⁶⁾

25) 투르크멘차이 조약 <https://w.wiki/EQzP> (최종검색일 2025.06.08.)

III. 정치

다게스탄의 정치 체제는 역사적으로 특정 민족의 권력 독점과 그에 대한 분산 요구라는 맥락에서 형성되었다. 스탈린 시대에는 아바르인이 권력을 독점하며 정치적 안정을 유지했으나, 소련 붕괴 이후 중앙정부의 권위가 약해지면서 민족 간 권력 재분배와 전통적인 촌장 체제의 복원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3년, 특정 민족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된 헌법이 제정되었다.

현재 다게스탄은 러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으로서 독자적인 헌법과 정치 체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자치권도 행사한다. 대통령 중심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세 차례의 국민투표에서 모두 부결되었다. 이는 대통령직이 특정 민족 집단에 권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 결과 최고 권력자는 상원의장이며, 이 직위는 민족 간 분쟁 방지를 위해 순환 선출된다.

다게스탄 정치 체제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고위 공직의 민족 간 권력 분산 시스템이다. 상원의장은 두 명의 부의장을 지명하며, 내각 장관들도 상원의장에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각 부처의 고위 관료는 주요 민족 집단에서 고르게 선출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소수 민족까지 포함한 정치적 균형 유지를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다게스탄은 다민족 협의제 공화국으로 평가된다. 인민 의회는 법률 제정권을 가진 최고 입법기관이다. 현재 다게스탄 공화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성된 삼권분립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대통령은 5년 임기로 직접 선출된다. 27)

3.1 입법부 28)

다게스탄 공화국의 입법부는 1995년 구성되었으며, 다게스탄 헌법 제정 이후 창설되었다. 직접 선거로 인해 선출되는 의회 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단원제이다. 의원 수는 90명이다. 2011년 3월 13일 선출을 통해 의회가 구성되었고 현재까지 임기를 하고 있다. 입법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법률 제정, 공화국 예산 승인, 공화국 고위 공직자 승인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다. 2021년 9월에 선출된 자우르 아세보비치 아스켄데로프(Заур Асегович Аскендеров)가 의장을 맡았으며 2026년 9월까지 임기가 예정되어 있다.



[그림15] 다게스탄 공화국 의장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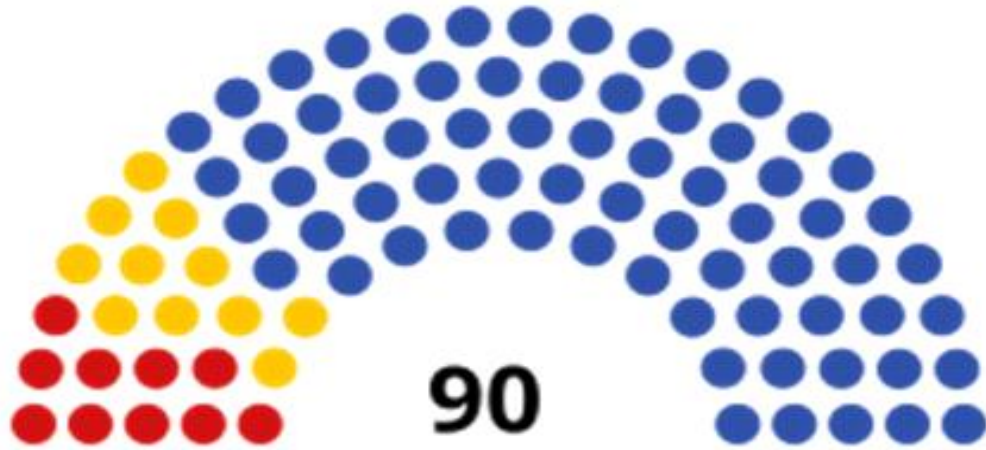
[그림16] 다게스탄 공화국 의회 의정 활동모습

26) 이맘 샤밀 <https://w.wiki/BsZE> (최종검색일 2025.06.08.)

27) <https://en.wikipedia.org/wiki/Dagestan> (최종 검색일 2025.06.08.)

28) 다게스탄 입법부 <https://w.wiki/AqYu> (최종 검색일 2025.06.08.)

29) 다게스탄 공화국 의장



[그림17] 정당별 의석 현황



[그림18] 의회 건물

정당 별 의석 현황 (2021년)

정당	의석수
통합러시아당(Единая Россия)	69
러시아연방공산당(КПРФ)	10
정의 러시아당(Справедливая Россия)	11

http://nsrd.ru/organizatsiya/rukovodstvo/predsedatel_ns_rd/shihsaidov_hizri_isaevich
(최종검색일 2016.06.13.)

3.2 행정부

현 대통령 Меликов, Сергей Алимович³⁰⁾



[그림19] 다게스탄 공화국 현 대통령 세르게이 알리모비치 멜리코프

다게스탄의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며, 과거에는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었으나, 현재는 푸틴 대통령의 제청으로 인민 의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된다. 이는 중앙 정부와의 정치적 연계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행정부 수반의 임기는 5년이며, 공화국 정부(내각)구성 및 임명, 지역 예산 승인 및 집행, 공공 질서 유지 감독, 연방 및 공화국 헌법 이행 책임 등의 주요 권한을 가진다. 행정부는 정부 또는 내각 형태로 구성되며,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다게스탄 공화국의 제5대 대통령은 세르게이 알리모비치 멜리코프(Сергей Алимович Меликов)이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1965년 러시아 모스크바 주 오레호보-주예보 출신/레즈긴족

1) 군사경력

소련 내무부 산하 사라토프 고등군사지휘학교 졸업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내무부 산하 부대에서 복무

1994년 프룬제 군사 아카데미 졸업

2011년 러시아 연방군 참모총장 아카데미 졸업

1994-1999년 1차 체첸 전쟁 참여-작전 사령부 부참모장 및 대대장 복무

2016년 러시아 국가 근위대 초대 부국장 겸 총사령관

2) 정치경력

2014년 북캅카스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로 임명

2019년 스타브로폴 지방 상원의원

2020년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으로 다게스탄 공화국 대통령 대행 임명

2021년 인민회의 승인으로 공식 수반 취임

30) 멜리코프 대통령 <https://w.wiki/93vH>(최종 검색일 2025.06.08.)

	
<p>[그림20] 제4대 대통령³¹⁾</p>	<p>[그림21] 제3대 대통령³²⁾</p>
<p>바실리에프 블라디미르 압둘아리비치</p>	<p>압둘라티포프, 라미잔 가지무라도비치</p>
<p>전 대통령(2018년 9월 9일~2020년 10월 5일)</p> <p>1949년 모스크바 출생</p> <p>1992-1993년 러시아 연방 내무부 참모 수석 겸사</p> <p>1998-2001년 러시아 연방 안전 보장 이사회 차석</p> <p>2011년 국가 두마 국장 및 반부패 국가 두마 위원</p> <p>2016년 러시아 연방 의회 대리인으로 출석</p> <p>2017년 사임한 라미잔 압둘라티포프를 이어 다게스탄 대통령 권한 대행</p> <p>2018년 9월 9일 대통령 임기 시작</p>	<p>1946년 8월 4일 다게스탄 공화국의 게브구드 트랄라티노스키 (селение Гебгуда Тлярагинского района)에서 출생.</p> <p>1966-70년 군대에서 복무.</p> <p>1975년 다게스탄 공화국 대학교에서 역사학부 졸업.</p> <p>1975-78년 레닌그라드 대학에서 철학 석사.</p> <p>1985년 레닌그라드 대학에서 철학 박사 취득 후 다게스탄 사범대학교 철학학과에 재직.</p> <p>1988년 소련 중앙정부(ЦК КПСС)에서 분석부에서 근무.</p> <p>1990-1993년 소련사회주의공화국(РСФСР)의 민족대표</p> <p>1995-1997년 러시아 연방 국회에 선출.</p> <p>1997-2000년 러시아 연방 장관직 수행.</p> <p>2005-2009년 타지키스탄 공화국 내의 러시아 연방 전권대사직 수행.</p> <p>2009-2011년 모스크바 예술 대학교 총장 역임.</p> <p>2011년 러시아 연방 정부 국회(Дума)에 의원이자 부의장으로 선출.</p> <p>2013년 다게스탄 공화국 임시 대통령 직 수행.</p>

31)다게스탄 공화국 대통령
<http://president.e-dag.ru/rukovodstvo/2013-03-24-22-26-29> (최종검색일 2016.06.13.)

32) 제 3대 대통령 <https://w.wiki/9ddg> (최종검색일 2025.06.08.)

3.3. 사법부³³⁾

다게스탄 사법부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면, 1994년에 제정된 자체 헌법에 근거하여 자치 정부 및 행정 체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핵심적인 권력 구조는 러시아 연방 법 체계에 종속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다게스탄이 러시아 연방의 한 구성 주체이기 때문에 나타는 특징이다. 사법부의 구성은 러시아 연방의 사법 체계와 기본적인 틀을 같이 한다. 또한, 러시아 연방 헌법 재판소와 공화국 내 자체 법무부가 러시아 연방 법무부의 지역 지부 역할을 수행하며 사법 기능을 지원한다. 사법부의 독립성 측면에서는 명목상으로는 독립이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연방 정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특히, 치안 불안, 테러, 분리주의와 관련된 주요 사건의 경우 연방 수사기관이 깊숙이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 민족 및 종교적 다양성, 특히 이슬람교의 영향력은 사법부 운영에 특수한 고려 사항으로 작용한다.



다게스탄 공화국 법무부의 설립과 기능

다게스탄 공화국의 법무 행정 체계는 1999년을 기점을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1999년 8월 2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 제954호에 따라 '다게스탄 공화국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러시아 연방 법무부의 지역 본부로 전환되었다. 이는 다게스탄 지역에서의 사법 행저의 일관성과 법적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연방 차원의 조치로 해석된다.

이 조치에 따라 다게스탄 법무부는 단순한 지방 행정 기관의 역할을 넘어, 사법 분야에서 국가 정책을 실행하고, 개인과 국가의 권리 및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며, 법원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법률의 집행과 재판 절차의 정당한 운영을

감독하는 역할을 통해 다게스탄 내에서의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22] 다게스탄 공화국 법무부 칙령³⁴⁾

이후 2002년 8월 8일, 다게스탄 공화국 국무원령 제108호에 따라 다시 한 번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 시점 다게스탄 법무부는 공화국 애부의 법적 정비와 자체적 사법행정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재설치되었으며, 지역적 자율성과 중앙 통제 간의 균형을 조율하는 기능을 강화하였다.

결과적으로 다게스탄 법무부는 연방과 공화국 사이의 사법적 연결 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법의 집행과 시민 보호를 위한 핵심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기관의 설립은 다게스탄 공화국의 정치·행정 체계가 점차 법적 안정성과 제도적 정합성을 갖추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33) <https://minyust.e-dag.ru/ministry/activity/12110>

34) **다게스탄 법무부** <https://minyust.e-dag.ru/ministry/activity/12110>

3.4 다게스탄 공화국 행정단위

[그림23] 다게스탄 공화국의 행정도시³⁵⁾



다게스탄 공화국은 41개의 주(район) (6번Бежгинский участок이 40번Цунтинский район에 포함되어서 공식적인 연방구역은 41개)³⁶⁾와 10개의 시(город)로 나누어져있다³⁷⁾. 주요 도시로는 수도 마하치칼라(Махачкала)를 포함하여, 데르벤트, 하사뷰르트, 부이낙스크가 있다.³⁸⁾

35) <http://refy.ru/18/40727-respublika-dagestan.html>(최종검색일 2016.06.13.)

36) https://ru.wikipedia.org/wiki/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_деление_Дагестана

37) <http://president.e-dag.ru/respublika/2013-03-24-22-29-26> (최종검색일 2016.06.13.)

38) <http://www.e-dag.ru/2013-05-27-06-53-44/2013-05-27-23-055> (최종검색일 2016.06.13.)

2.2.1 주요도시

가. 마하치칼라 (Махачка́ла) (수도)



마하치칼라는 다게스탄 공화국의 수도로, 카스피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인구는 약 76만명(약75만 9,490명)에 달한다. 이 도시는 19세기 중반 러시아 제국의 요새도시로 처음 건설되었으며, 당시에는 표트르 1세의 이름을 딴 페트롭스코예로 불렸다. 이후 페트롭스크포르트라는 명칭을 거쳐, 1921년 러시아 혁명가 마하치 다하다예프를 기리며 현재의 이름인 마하치칼라로 변경되었다. 지리적으로는 북서쪽에 하사뷰르트, 서쪽으로 150km떨어진 곳에 체첸의 수도 그로즈니가 위치한다.³⁹⁾

[그림24]마하치칼라 시 문장⁴⁰⁾

마하치칼라는 카스피해에서 가장 큰 항구도시로, 석유 정제, 기계 생산, 식품 가공 등 다양한 공업이 발달해 있다. 다게스탄의 유일한 국제항인 마하치칼라 항구를 통해, 석유, 가스, 곡물, 건설 자재 등의 수출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동항이라는 특성 덕분에 연중 무역 활동이 가능하다. 이 항구는 북-남 수송회랑(INSTC: 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의 핵심 거점으로도 기능하며, 카스피해 연안 석유 수출 경로의 전략적 지점으로서 높은 중요성을 갖는다.⁴¹⁾

또한,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마하치칼라는 다게스탄 내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 경제적·문화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 물류, 정치의 중심지로서 다게스탄의 현대화를 이끄는 중추 도시라 할 수 있다.



[그림25] 마하치칼라 항구⁴²⁾

39) 마하치칼라 <https://w.wiki/Ani4>

40) <http://xn----etbdra6aacodma.xn--p1ai/mahachkala>(최종검색일 2016.06.13.)

41) 마하치칼라 국제항구 Махачкали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морской торговый порт <https://w.wiki/CDyF>

나. 데르벤트 (Дербент)



다게스탄 공화국의 남동부, 카스피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러시아 연방의 최남단 도시로 손꼽힌다. 인구는 약 12만 명 (127,084명;2024년 기준)이며, 아제르바이잔인(34.34%), 레즈긴인(35.56%), 타바사란인(11.89%) 등 다양한 민족이 거주한다. 이 도시는 약 5천 년의 역사를 지닌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고대부터 그리스인과 로마인에게 ‘카스피의 문’으로 불릴 정도로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주목받아 왔다. 43)

[그림26] 데르벤트 시 문장⁴⁴⁾

특히, 도시를 상징하는 데르벤트 요새와 고대 성벽, 그리고 구시가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으며, 그 역사적 가치와 아름다운 경관으로 인해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문화유산은 오늘날 관광 산업의 중심 자원이자 데르벤트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데르벤트는 바쿠와 철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남북을 잇는 교통의 요지로서 전략적 중요성도 지닌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은 도시의 역사적, 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⁴⁵⁾



[그림27,28] 데르벤트 요새(Крепость Нарын-Кала)⁴⁶⁾

42) <https://w.wiki/CDyF> (최종 검색일 2025.06.08.)

43) 데르벤트 <https://w.wiki/AR58>

44) <http://www.derbent.ru/city/gerb.php>(최종검색일 2016.06.13.)

45) Крепость Нарын-Кала <https://w.wiki/CCGM>

46) Крепость Нарын-Кала <https://w.wiki/CCGM>

다. 하사뷰르트 (Хасавюрт)



다게스탄 북서부, 체첸과 가까운 지역, 테렉-술라크 저지대의 일부인 쿠미크 평원에 위치해 있다. 인구는 약 16만명 (159,252명:2024년기준)에 달하며, 30개 이상의 소수민족이 함께 거주하는 다민족 도시로 유명하다. 1846년 군사 요새로 처음 건설된 뒤, 주변 마을에서 이주해 온 인구가 늘어나면서 1931년에 공식적으로 시로 승격되었다. 하사뷰르트는 북캅카스 동부의 대규모 농업지대의 경제적 중심지로, ‘다게스탄의 곡간’으로 불릴 만큼 농업과 식품가공업이 발달해 있다.

[그림29]하사뷰르트 시 문장⁴⁷⁾

또한, 체첸 전쟁 이후 체첸 내 상거래가 어려워지면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동부 지역 최대의 시장이 이곳에 형성되어 상업도시로서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주요 산업은 식품 가공, 벽돌 제조, 의류 생산 등이 있다. 최근 수십 년간 테러와 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다게스탄의 경제와 유통, 교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사뷰르트는 연평균 기온이 11.5℃로 온화한 편이며, 연간 강수량은 약 414mm로 비교적 건조한 기후를 보인다.이다. 농업과 식품가공업이 발달했으며, 북캅카스 동부 최대 시장이 있어 상업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이다. ⁴⁸⁾

라. 부이낙스크 (Буйнакск)



다게스탄 공화국의 중부, 대카프카스 산맥 자락에 위치한 도시로, 슈라오젠 강이 도시를 따라 흐르고 있다. 이 도시는 1834년에 군사적 요충지로 건설되었으며, 1922년까지는 체미르한슈라(Темир-Хан-Шура)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1866년에 공식적으로 도시 지위를 받았고, 1922년에는 다게스탄의 혁명가 우마르 다니야로비치 부이낙스키(У.Д.Буйнакский)를 기리기 위해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부이낙스크는 다게스탄 산악지대의 관문 역할을 하며, 전략적·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림30] 부이낙스크 시 문장

1970년 5월에는 강진으로 도시 전체가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이후 재건 과정에서 도시 기반시설이 현대적으로 정비되었다. 부이낙스크는 다게스탄 내에서 정치·행정적 중심지 중 하나로 꼽히며,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는 다민족 도시이다. 인구는 2024년 기준 약 70만명(약 69,554명)으로 집계된다. 도시 주변에는 아름다운 산악 경관과 자연이 펼쳐져 있어, 등산과 트레킹 등 야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슬람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린 지역으로, 전통적인 코카서스 문화와 현대적 도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다.

47) 하사뷰르트 <https://w.wiki/B7aD>

48) 하사뷰르트 <https://w.wiki/B7aD>

마. 키즐랴르 (Кизляр)



다게스탄 북부, 테레크 강 하류에 위치한 도시이다. 마하치칼라에서 북쪽으로 약 221km 떨어져 있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포도주와 브랜디 생산지로 유명하며, 농업과 식품 가공업이 발달해 있다. 이 지역의 따듯하고 건조한 기후는 포도 및 곡물 재배에 유리하여 코냑, 포도주 등 주류 생산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생산되는 주류는 러시아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CIS국가, 코카서스 국가 등으로 수출된다.⁴⁹⁾

[그림31] 키즐랴르 시 문장⁵⁰⁾

주요 업체로는 키즐랴르스키 코냐츠니 자보드(Кизлярский коньячный завод) 등이 있으며, 러시아를 대표하는 브랜디 및 코냑 생산지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⁵¹⁾ 이렇게, 키즐랴르는 18세기부터 무역과 농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바. 카스피스크 시 (Каспийск)



다게스탄 공화국 남동부,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마하치칼라에너 남쪽으로 약 18km 떨어져 있다. 인구는 약 12만명(2021년 기준)이며, 1932년에 건설되어 1947년 시로 승격되었다. 소련 시기 동안 카스피스크는 군수 산업, 조선업, 해양 기계, 석유 화학 등 중공업이 크게 발전한 지역이었으며, 지금도 러시아 해군의 주요 기지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조선업과 해군 관련 산업의 중심지로, ‘다그디젤’이라는 주요 방산 기업이 위치해 있다. ⁵²⁾⁵³⁾

[그림32] 카스피스크 시 문장

이 회사는 어뢰 및 수중 무기 개발, 해군 관련 부품 제작, 선박 정비 등을 담당해왔으며, 한때 다게스탄 해군력의 핵심적 기술 거점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다그디젤 8번 공장은 1966년에 공식적으로 폐쇄된 이후 더 이상 가동되지 않으며, 현재는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조물 일부가 붕괴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공간은 역사적 유적지로 관광지화되고 있으며, 산업 유산으로서 의미를 지닌다.⁵⁴⁾

오늘날 카스피스크는 러시아 해군의 카스피해 함대 재배치에 따라 전략적 군항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카스피해 함대 본부가 카스피스크로 이전됨에 따라, 이 도시의 군사

49) 키즐랴르 [https://w.wiki/EQ\\$L](https://w.wiki/EQ$L)

50) 키즐랴르 [https://w.wiki/EQ\\$L](https://w.wiki/EQ$L)

51) Кизлярский коньячный завод <https://w.wiki/9s9i>

52) 카스피스크 <https://w.wiki/89J2>

53) 다그디젤 Дагдизель [https://w.wiki/EQ\\$W](https://w.wiki/EQ$W)

54) 다그디젤 8번 작업장 [https://w.wiki/EQ\\$X](https://w.wiki/EQ$X)

적 중요성을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 카스피스크의 해군 기지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되며 국제 언론에도 주목받게 된 계기가 되었다. 55) 한편, 온화한 기후와 해변 덕분에 카스피스크는 휴양 도시로도 인기가 높으며, 최근에는 교통 및 물류 중심지로서의 기능 또한 확대되고 있다. 해군과 조선 산업, 관광, 물류가 어우러진 복합 전략 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그림33] 상공에서 본 다그디젤 8번 작업장⁵⁶⁾

3.4 다게스탄 분쟁

1991년 구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연방 남부 카프카즈(Caucasus) 산맥 일대의 여러 자치 공화국은 러시아 연방 내 행정단위로 남게 되었으나, 각 지역의 민족적·종교적 정체성이 부각되면서 독립과 자치 요구가 거세졌다. 이 지역은 오랜 기간 지리적 고립과 다양한 민족 구성으로 인해 독특한 민족성과 문화를 형성해왔으며, 소련 붕괴 이후 이슬람 신앙의 부흥과 더불어 민족주의, 경제적 불만, 정치적 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57)

1999년 8월, 체첸의 무장세력 지도자 샤밀 바사예프와 사우디 출신 이슬람 전사 이븐 알 카타브 등은 체첸 반군과 다게스탄 내 일부 이슬람주의 세력을 규합해 다게스탄 영내를 침입했다. 이들은 다게스탄 일부 지역에서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했으나, 실질적으로 '체첸-다게스탄 공화국'이라는 국가가 세워지지는 못했다. 이는 1999년 12월과 2000년 3월에 각각 실시될 러시아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노린 시도였다. 러시아 정부는 이를 '테러와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58)

1999년 러시아 아파트 폭탄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 정부는 체첸계 무장세력을 주범으로 지목하며 대대적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당시 바사예프는 폭탄 테러범들이 다게스탄 공화국에서 러시아 군대가 저지른 행동에 분노한 다게스탄인이라고 말하며 폭탄테러의 주범을 다게스탄인으로 내몰았다. 바사예프가 다게스탄인을 주범으로 몰았다는 근거는 부족하다. 59)

55) 우크라이나, 카스피스크 드론 공격
<https://maritime-executive.com/article/ukraine-hits-russian-navy-s-caspian-flotilla-in-long-range-strike>

56) 다그디젤 8번 작업장 사진 [https://w.wiki/EQ\\$X](https://w.wiki/EQ$X)

57) 소련의 붕괴 <https://w.wiki/tkZ>

58) 샤밀 바사예프 <https://w.wiki/4zjQ>

59) 러시아 아파트 폭탄 테러 <https://w.wiki/8pV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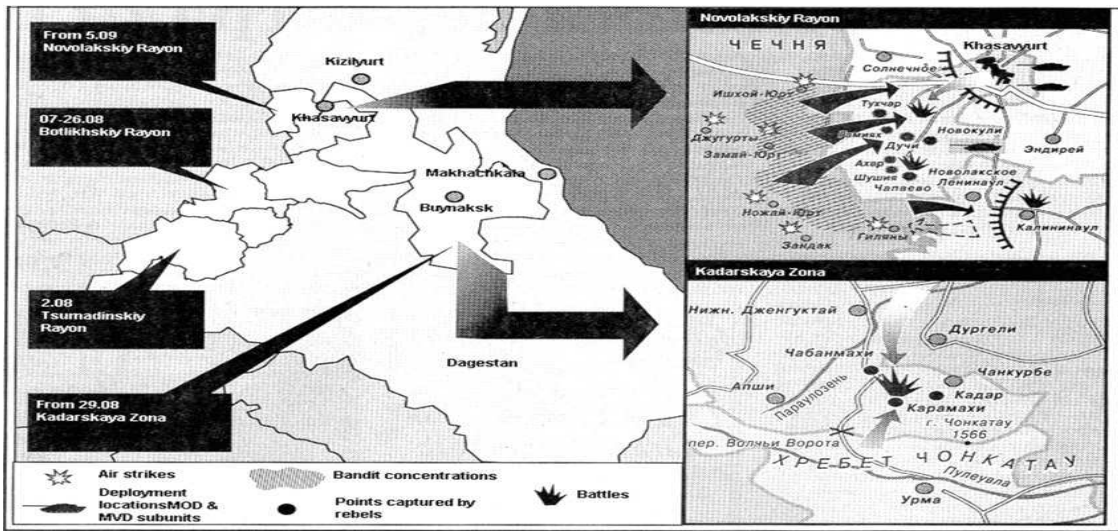
또한 1998년 5월, 다게스탄의 수도 마하치칼라에서 라크족 출신 정치인 나지르 카칠라에프의 추종자 300여 명이 정부 청사를 포위하고 다게스탄 수상 키즈리 쉬크사이드프를 감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약 2,000여 명의 시위대가 국회의장, 내무부 장관 등 고위직의 사임을 요구하며 비상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로 인해 국경의 군대가 비상대기하며 수도로 가는 모든 길이 봉쇄되는 등 지역의 불안정성이 극대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이후 무장 분쟁의 배경이 되었다. 체첸 차량이 경찰에 발포하여서 경찰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 당하였으며, 긴장감은 더해졌다. 1999년 8월 체첸계 무장세력이 다게스탄을 침공해 카프카스 지역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 하자, 러시아군은 10월 체첸을 침공하여 제2차 체첸 전쟁이 시작되었다. 러시아군은 국토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북부 평야지대를 신속히 점령했으나, 체첸 반군은 남부 산악지대를 근거로 게릴라전을 펼치며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다게스탄과 체첸을 비롯한 북캅카스 지역에서는 민간인 피해와 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했다. 2000년대 초 러시아의 대규모 군사작전 이후 체첸과 다게스탄 등지의 무장저항은 크게 약화되었으나, 이후에도 캅카스 에미레이트 등 이슬람 무장단체가 산발적으로 테러와 반란을 지속했다. 2009년 러시아 정부는 체첸 내 대규모 전투가 종료됐다고 공식 선언했지만, 북캅카스 지역에서는 저강도 분쟁과 테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친러 정권 수립과 경제 지원, 치안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안정화에 힘쓰고 있으나, 완전한 평화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태다. 60)61)

러시아 경찰은 12일 북코카서스 다게스탄 공화국 수도 마하치칼라의 민가를 급습해 무장대원 7명을 사살했다. 현지 사법 관리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새벽 무장괴한들이 숨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 한 뒤 문제의 민가를 포위해 공격했다. 연방보안국 다게스탄 지부 책임자 바체슬라프 샨신 소장은 7명의 무장괴한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추가로 시신을 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현지 TV는 중무장 장갑차와 병사들이 총격과 폭발음이 들리는 가운데 주택지로 이동하는 장면을 방영했다. 경찰은 앞서 이달 초 내무부 보안군을 공격해 여러 명을 부상시킨 혐의로 수배 된 무장대원 1명을 검거했다. 내무부 마르크 톨친스키 대변인은 경찰이 이날 다른 무장조직을 찾기 위해 마하치칼라 시내의 다른 아파트도 급습했다고 밝혔다. 다게스탄을 비롯한 북코카서스 지역에선 범죄조직과 인근의 체첸공화국에 서 넘어오는 무장반군들의 준동으로 치안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2007. 11. 13) 이재준기자 yjjs@newsis.com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통신사62)

60) 무장세력의 다게스탄 침공 [https://w.wiki/EQ\\$S](https://w.wiki/EQ$S)

61) 제2차 체첸 전쟁 <https://w.wiki/8kEu>

62) "러시아, 다게스탄서 무장대원 7명 사살",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통신사, 이재준기자



[그림34] 다게스탄 분쟁(63)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 공화국에서 송유관이 파괴돼 66톤의 원유가 유출됐습니다. 러시아 비상 대책부는 체첸 공화국과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티호레츠크-바쿠 송유관이 파괴됐으며, 소방관들이 간신히 불길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송유관 파괴는 체첸 무장 반군을 비롯한 테러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체첸 무장 반군은 그동안 러시아의 송유관과 전기 공급 시설 등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공언 해왔습니다.

(2004. 04. 26) 유투권 기자 YTN & Digital YTN(64)

63) www.globalsecurity.org (최종검색일 2016.06.13.)

64) "러시아 남부 송유관 파괴", YTN & Digital YTN, 유투권 기자

IV. 경제

4.1 경제 개관

다게스탄 공화국의 경제 구성은 북카프카스 연방관구에 속하며 2023년 기준 GRDP가 약 1조 6,200억 루블로 북카프카스 연방관구 내 4위, 러시아 연방 내 51위 수준이다. 1인당 GRDP는 약 26만 루블로 러시아 내 최하위권에 속한다. 다게스탄 산악지대의 전통적인 경제는 양치기 등 목축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쿠믹, 노가이 인 등 일부 민족은 주로 평야와 스텝 지역에 거주하며, 나머지 민족들은 산악지대에서 목축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광물자원, 수력자원이 풍부하지만, 대규모 생산보다는 소규모 채굴과 가공이 중심이며, 석유 관련 및 금속가공업이 지역 경제에서 비중이 크다. 지역적 특색은 테렉강 델타지대와 술락강 유역지대는 관개를 이용한 곡물, 포도재배, 원예와 식품 가공업 중심이며, 북쪽의 노가이스크 스텝은 목양이 중심이다. 카프카스 산맥 기슭의 구릉지대는 수도 마하치칼라를 중심으로 하는 공업지대로 식품, 경공업, 금속가공업, 과일재배도 발달했다. 내륙 산악지대는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목양 등의 축산업과 식품가공업이 중심이다. 가장 온난하고 건조한 남부지대는 과수, 포도, 아열대 농업식물의 재배가 활발하다.

경제적으로 다게스탄은 러시아 연방에서 가장 빈곤한 공화국 중 하나이다. 운송체계나 무역이 원활하지 못하다. 따라서 러시아의 재정보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에 충성심을 보이지 않으면 모스크바로부터의 제재를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치적·행정적 충성도와 중앙정부와의 관계까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다게스탄의 산업은 거의 내수용이며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부의 건조한 스텝 지역을 제외하고는 산악 지대에서 농사를 짓기 어렵고 저지대마저 제한되어 있다.

1960~70년대 소련 정부는 산악지역 주민들을 평지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쿠미크인, 노가이인 등 평야 거주민들의 토지 상실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 그 결과 종래 목축을 하면서 살던 쿠믹, 노가이 인들은 자신의 땅들을 대부분 빼앗기고 생활이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쿠믹, 노가이, 레즈긴인 등 일부 민족들 사이에서는 지역 내 자치 확대나 분리 요구가 제기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분리 독립보다는 문화적·행정적 자치 확대 요구가 더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65)

65) 다게스탄 경제 <https://w.wiki/ER4h>

4.2. 평균임금

다게스탄 공화국 월 평균 임금 (표 업데이트)

	2019	2020	2021	2022	2023
월 평균 임금(루블)	27,122	29,797	33,018	37,067	41,200
전년대비 실질 소득 증가율(%)	105.3	105.8	103.7	104.6	105.2

2023년 기준 다게스탄의 월 평균 임금은 약 41,200루블로, 2018년 (27,122루블) 대비 약 52%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실질 소득 증가율도 매년 3~5%대를 유지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다게스탄의 임금 수준은 러시아 전체 평균(2023년 기준 약 62,000루블)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북카프카스 연방관구 내에서는 상위권에 속한다.

다게스탄의 임금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야말-네네츠, 마가단 등 자원 채굴 및 대도시 지역과 비교해 현저히 낮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산업 구조, 낮은 생산성, 높은 비공식 경제 비율 등과 관련이 있다. 최근 몇 년간 임금 상승률은 러시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지역 경제 성장과 생활수준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다게스탄은 북카프카스 연방관구 내에서도 임금 격차가 존재하며, 같은 관구 내 다른 공화국(예: 카르차예보 체르케시야, 스타브로폴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을 보인다. 이러한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다게스탄은 여전히 러시아 내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속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⁶⁶⁾⁶⁷⁾

66) 러시아 연방 통계청 Rosstat

67) List of Russian federal subjects by average wage <https://w.wiki/6cDr>

4.3 주요 산업

<GRDP에서 각 산업군이 차지하는 비중> (표 업데이트)

	2021 (백만 루블)	2022생산액	2023 생산액	전년도 대비 증가 율(%)
농업	95,500	105,200	110,000	4.5
광업 및 채석	3,600	4,020	4,100	2.0
식음료 및 담배	15,200	16,500	17,500	6.1
섬유 및 의류 산업	210	240	250	4.2
가죽 제품 및 신발	95	103	105	1.9
목재 제품	4.5	4.8	5	4.2
출판 및 인쇄	190	210	220	4.8
석유제품	1,100	1,270	1,300	2.4
화학 산업	200	220	230	4.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2,400	2,770	2,900	4.7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4,200	4,600	4,800	4.3
금속 제품	130	148	150	1.4
기계 및 장비 생산	260	302	310	2.6
전기 및 광학 기기 제조	3,400	3,650	3,800	4.1
자동차 산업	3,400	3,730	3,950	5.9
전기, 가스 및 수도	14,200	15,200	15,600	2.6

(단위 백만루블)

<산업분야 GRP>(표 업데이트)

산업분야	2022년	2023년
GRP(총액)	1,520,000	1,620,000
농업, 임업, 사냥, 어업 및 양식업	185,000	192,000
채광	4,050	4,100
제조 산업	62,300	66,800
전기, 가스 및 증기;에어컨	11,900	12,400
물 공급;폐기물 수집 및 처리, 오염 제어	2,350	2,500
건설	164,000	170,000
도매 및 소매업;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리	285,000	297,000
운송 및 보관	65,000	68,500
호텔 및 케이터링	52,000	54,500
정보통신	13,400	14,200
재정 및 보험	10,900	11,600
부동산 운영	20,800	21,900
과학 및 기술	7,900	8,400
행정 및 기타	9,200	9,900
공공 행정, 군사 보안, 사회 보장	78,000	81,500
교육	58,000	61,000
건강 및 사회 서비스	47,000	49,000
문화, 스포츠 및 레저	10,100	10,700

(단위: 백만루블)

다게스탄 공화국의 경제는 최근 2~3년간 산업별 생산액과 성장률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먼저, 농업, 임업, 어업 및 양식업 부문은 2022년 약 1,850억 루블, 2023년 약 1,920억 루블로 공화국 GR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4.5%)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다게스탄이 러시아 내에서 쌀, 포도 등 농산물 생산의 핵심 지역임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식음료 및 담배 제조업은 2022년 165억 루블에서 2023년 175억 루블로 증가하며, 연평균 6%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내수시장 확대와 가공식품 산업 발전이 뒷받침한 결과로 평가된다. 또한, 전기, 가스 및 수도 생산 부문은 2022년 152억 루블에서 2023년 156억 루블로 증가했으나, 성장률은 다소 완만한 2.6%에 그쳤다. 이는 에너지 인프라 확장과 안정적 공급 체계유지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광업 및 채석업은 2022년 40억 루블에서 2023년 41억 루블로 소폭 증가하며, 지역 내 자원 개발이 꾸준히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화학 산업, 기계 및 장비 생산, 자동차 산업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서비스 산업 주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이 2022년 2,970억 루블에서 2023년 2,970억 루블로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했으며, 건강 및 사회서비스, 공공행정 분야는 각각 2022년 490억 루블, 815억 루블에서 2023년 490억 루블, 815억 루블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다게스탄 경제 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종합하면, 다게스탄 경제는 전통적인 농업 및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다각화가 진행 중이다. 특히, 제조업 내 화학, 기계, 자동차 산업과 사회서비스 및 공공행정 분야가 성장세를 주도하며, 지역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68)69)70)

4.3.1 농업 및 식품공업

농업은 다게스탄 경제의 기본적인 산업 중 하나이며, 다게스탄 공화국 지역 총생산의 20~25%를 차지한다. 농업 분야는 다게스탄 경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농업 생산의 약 25~30%가 축산업, 70~75%가 곡물 및 식물성 생산에 해당한다. 공화국 내 약 3만 개 안팎의 소규모 농장과 약 900개의 농업기업이 존재한다는 과거 통계가 있으나, 최근에는 농업 인구 감소와 농가 구조조정으로 농가 수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다게스탄 영토의 49%는 경작지 및 농업용지로 사용된다. 2023년 기준 다게스탄의 농업 생산액은 약 1,000억 루블 내외로 집계된다. 주요 농업분야는, 곡물, 감자, 채소, 포도, 과일류 생산 등이며, 특히, 쌀과 포도 생산이 두드러진다. 농업생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포도농업은 특히 제르벤트, 카야켄트, 키즐라르, 하사부르트 지역과 마하치칼라시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경작된다, 주요 농업 경작 지역으로는 사무르 강 근처와 쿨리게르차이와 체트레호코이사강 주변이다. 다게스탄은 러시아연방의 주요 포도 및 쌀 생산 지역 중 하나로, 2023년 기준 쌀 생산량은 약 106만 톤에 달한다. 포도농업 지대는 약 2만 헥타르에 달하며, 연간 포도 수확량은 6만~7만 톤 수준이다. 최근에는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병해충 관리, 친환경 농업 확대, 농산물 수출 증대가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71)



[그림35] 다게스탄 공화국 쌀농사72)



[그림36] 다게스탄 공화국 포도 농사73)

68) Rosstat,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69) 다게스탄 개관 <https://w.wiki/8ZP8>

70) 다게스탄 경제 개관 <https://w.wiki/ER4h>

71) 다게스탄 개관 <https://w.wiki/8ZP8>

72)

http://www.riadagestan.ru/news/selskoe_khozyaystvo/obem_proizvodstva_produktsii_selskogo_kh

4.3.2 공업

다게스탄 공화국은 공업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다. 최근 공식 통계에 따르면, 다게스탄의 공업(제조업+광업) 부문 GRP(지역내 총생산)에서 약 8%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 전기·광학 기기, 기계 및 장비, 화학·고무·플라스틱, 금속가공 등 다양한 제조업이 주요 산업으로 꼽히며, 최근에는 자동차와 기계·장비 분야의 생산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항공기·조선 등 중공업은 소규모 특화기업이 일부 존재하나, 전체 산업 내 비중은 크지 않다.

2013년 기준 공업 비중(37.5%)은 현재와 큰 차이가 있으며, 2023년 기준 다게스탄 공업(제조업+광업)비중은 약 8% 내외로, 서비스업과 농업의 성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축소된 상태이다. 최근 다게스탄의 제조업 기업들은 러시아 내수시장 확대, 국산화 정책, 기술협력 등과 연계해 점진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경공업 산업으로는 전통적으로 면직물과 실크, 카페트와 의류, 신발 등 방직·제화 분야가 발달해 있으며, 최근에는 내수시장 위주로 안정적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봉제공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방의 예약 계약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2022~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 제재 이후, 러시아 정부의 국산화 정책과 내수시장 확대에 힘입어 자동차, 기계, 일부 소비재 공업의 생산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첨단기술 및 대규모 중공업(항공, 조선 등)은 투자와 기술 이전의 한계로 성장세가 제한적이다.⁷⁴⁾

4.3.3 교통

교통단지는 다게스탄 공화국에서 주요한 공업 인프라이며, 교통인프라의 주요한 목적은 남북간, 동서간의 연결이다. 또한, 마하치칼라 해운 교역항과 항공, 철도, 자동차 도로, 간선 배관 등이 존재한다. 마하즈칼라 해운교역항은 카스피해에서 러시아의 유일한 직항 국제항구로 연간 약 150만 톤의 일반 화물과 400만 톤의 석유를 처리한다. 이 항구는 카스피해를 통한 러시아의 주요 교역 거점으로, 최근에는 항만 현대화 및 물류 인프라 확충이 추진되고 있다.

다게스탄 공화국의 항공교통은 마하치칼라 국제공항이 중심이며, 이 공항은 국내외 노선과 지역 노선을 운영한다. 2023년 기준 연간 승객 운송량은 약 130만 명으로, 코로나 19 이후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화물 및 우편 운송도 공항을 통해 이루어지며, 러시아 국내선이 전체 승객 운송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⁷⁵⁾

철도의 경우, 다게스탄 영토를 통과하는 노선이 연방 내 이동과 물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남부 지역은 인접국과도 연결되어 있다. 배관 운송 측면에서, 다게스탄을 경유하는 송유관(바쿠-노보로시스크, 302km, 직경 720mm)과 가스관(모즈독-카지마고메드, 297km, 직경 1,200mm/마카트-북카프카스, 129.4km, 직경 1,400mm)이 주요 에너지 수송로로 기능한다.

다게스탄 경제의 발전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자동차 교통이다. 전체 화물과

ozaystva_v_dagestane_v_2015_godu_vyros_na_5_1/ (최종검색일 2016.06.13.)

73) http://skfo.ru/news/2015/10/07/V_Dagestane_ojidaetsya_rekordnyiy_urojay_vinograda_176/ (최종검색일 2016.06.13.)

74) <http://president.e-dag.ru/respublika/2013-03-24-22-55-30> (최종검색일 2016.06.13.)

75) 마하치칼라 국제항구 Махачкали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морской торговый порт <https://w.wiki/CDyF>

승객 운송의 약 95%가 도로 운송에 의해 이루어지며, 공화국 내 도로망은 총 8,200km(연방 도로 643km, 공화국 도로 2,096km, 지역도로 4,417km 등)로 구성되어 있다. 도로 밀도는 $1,000km^2$ 당 약 165km수준이다. 76)

최근 러시아 전체적으로 자동차 보유 대수가 연 5~7%씩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 연장 증가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후화된 도로 인프라와 만성적 병목 현상, 불충분한 연방 도로망 등은 러시아 전체와 다게스탄의 사회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도로의 포장률, 하중 기준 미달, 교량 노후화 등 기술적 한계가 심각하여, 러시아 정부는 도로망 현대화와 인프라 확충을 국가적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도로 운송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도로 인프라의 현대화와 유지보수, 교통 안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로망 확충과 품질 개선 없이는 지역 간 연계성, 물류 효율성, 경제 성장 잠재력 모두 제약받을 수 밖에 없다. 77)78)79)

76) <http://president.e-dag.ru/respublika/2013-03-24-22-55-49> (최종검색일 2016.06.13.)

77) RZD <https://w.wiki/A4Yc>

78) 다게스탄 개관 <https://w.wiki/8ZP8>

79) KMI 북방물류리포트

4.4. 다게스탄 공화국 주 GRDP

표 북카프카스연방관구 GRDP (100만 루블)(표 업데이트)

	2018	2019	2020	2021	2022
북카프카스관구	2,070,000	2,230,000	2,400,000	2,690,000	2,950,000
다게스탄 공화국	623,000	668,000	713,000	781,000	850,000
잉구셰티야 공화국	54,000	58,000	62,000	67,000	71,000
카바르디노 - 발카르 공화국	138,000	147,000	153,000	167,000	181,000
카라차예브 - 체르케시야 공화국	74,000	78,000	82,000	87,000	92,000
북오세티야 - 알라니야 공화국	128,000	136,000	142,000	154,000	166,000
체첸 공화국	179,000	195,000	210,000	232,000	255,000
스타브로폴 변경주	666,000	719,000	779,000	872,000	970,000

다게스탄 공화국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최근 5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북카프카스 연방관구 내에서 중요한 경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약 6,230억 루블(한화 약 1조 3,700억 원)수준이었던 GRDP는 2022년 약 8,500억 루블(한화 약 1조 8,70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장세는 다게스탄이 스타브로폴 변경주에 이어 북카프카스 관구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경제 규모를 기록하게 하였다. 다게스탄의 GRDP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6,680억 루블, 2020년 7,130억 루블, 2021년 7,810억 루블에 이어 2022년에는 8,500억 루블에 달하였다.

이는 연평균 6~8%대의 성장률을 유지한 결과로, 농업과 식음료, 제조업 등 전통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서비스업 및 내수시장 확대, 인프라 투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다만, 다게스탄의 GRDP규모는 우리나라 광역지자체와 비교할 때 아직 낮은 편이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성장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다게스탄은 북카프카스 연방관구 내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확고히 하며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80)81)82)

80) rosstat.gov.ru

81)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82) 캅카스 연방관구 위키피디아 <https://w.wiki/9sQs>

1인당 GRDP

표 다게스탄 공화국 1인당 GRDP

	2020	2021	2022
다게스탄 공화국	270,000	290,000	310,000
잉구셰티야 공화국	180,000	190,000	200,000
카바르디노-발카르스크 공화국	320,000	340,000	370,000
카라차예보-체르케스카야 공화국	260,000	270,000	290,000
북오세티아-알라니야 공화국	340,000	360,000	390,000
체첸 공화국	230,000	240,000	250,000
스타브로폴 주	390,000	410,000	450,000

(단위: 루블)

다게스탄의 1인당 GRP(GRDP)SMS 2020년 약 27만 루블에서 2022년 약 31만 루블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북카프카스 연방관구 내에서 중간 정도의 경제적 생산성을 의미한다.

다게스탄의 1인당 GRP가 연간 약 2만 루블씩 증가하는 추세는 최근 몇 년간 경제가 소폭이나마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같은 기간 북오세티아-알라니야 공화국이나 스타브로폴 주는 다게스탄보다 훨씬 높은 1인당 GRP를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스타브로폴 주는 약 45만 루블, 북오세티아-알라니야 공화국은 약 39만 루블로 다게스탄의 격차가 상당하다.

이러한 수치는 다게스탄이 북카프카스 내에서 인구는 많지만, 경제적 자립성과 성장 잠재력은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다게스탄은 농업과 소규모 제조업, 일부 서비스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업 기반이 취약해 고용과 소득 창출이 원활하지 않은 구조이다. 이로 인해 실업률이 높고, 연방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점이 경제적 약점으로 지적된다.

다게스탄은 민족적·언어적 다양성으로 인해 사회적 통합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복합적인 사회구조와 경제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1인당 GRP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은 일부 경제적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북카프카스 연방관구 내 다른 지역과의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며, 이는 다게스탄이 지역 경제 발전에서 아직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한다.⁸³⁾⁸⁴⁾

83)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4.5 수출/수입⁸⁵⁾

표 다게스탄 공화국 수출/수입량 현황 (추정)

	2022	2023
수출액	80	110
수입액	200	210
무역수지	-120	-100

(단위: 100만 달러)

다게스탄 공화국의 2022년과 2023년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액은 각각 80,110(단위 생략, 추정치)으로 증가했고, 수입액은 200,210으로 소폭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각각 -120, -100 등으로 적자 규모가 다소 줄어든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다게스탄이 국제무역에서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 생산 및 수출 역량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게스탄은 러시아 내에서도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농업과 소규모 제조업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이로 인해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출은 주로 농산물, 일부 공산품, 수산물 등이 중심이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다. 이것은 지역 내 산업 구조와도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무역적자 구조는 다게스탄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지역 내 생산 및 소비를 충족하기 위해 외부 자원과 상품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경제적 자립성 부족과 연결된다. 반면, 2023년 기준으로 수출이 소폭 증가한 것은 다게스탄이 농업, 수산물, 일부 공산품 등에서 잠재력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가 무역적자 극복에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다게스탄은 앞으로 산업 기반 강화와 수출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⁸⁶⁾⁸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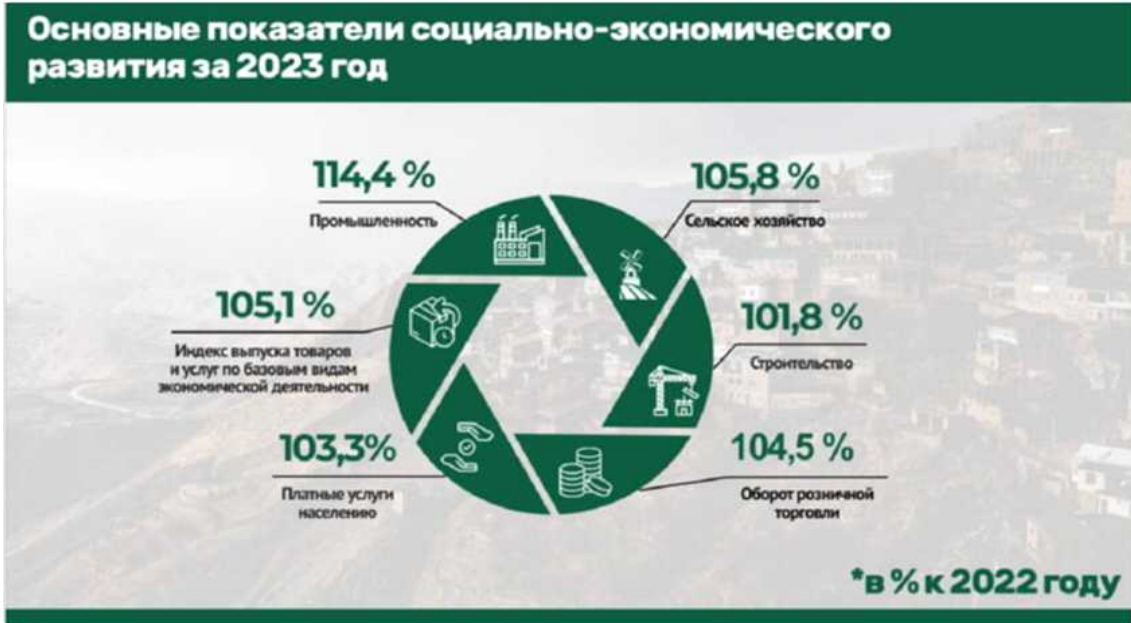
84) rosstat.gov.ru

85) 다게스탄 공화국 통계청 <http://dagstat.gks.ru> “Внешнеторговый оборот за 2018 год”

86) 러시아 연방 통계청 rosstat.gov.ru

87) UN Comtrade comtrade.un.org

4.6 주요 사회 경제 지표⁸⁸⁾



[그림37] 다게스탄 공화국 2023년도 사회 경제 지표

2023년 다게스탄 공화국의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이 지역이 최근 한 해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산업 부문은 전년 대비 14.4% 증가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다게스탄이 전통적으로 농업과 소규모 제조업에 의존해왔던 구조에서 점차 산업 다각화와 현대화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다게스탄 내 제조업과 식품가공업, 전자재 생산 등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성장의 배경으로 꼽힌다.

농업 부문 역시 5.8% 성장해, 다게스탄이 여전히 러시아 내에서 중요한 농산물 생산지임을 보여준다. 곡물, 과일, 채소, 양봉 등 다양한 농업 생산이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으며, 이는 다게스탄의 인구 구조와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농업 성장세는 식량 자급률 향상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건설 부문은 1.8% 증가에 그쳤지만, 이는 최근 러시아 전역에서 나타나는 건설 경기 둔화와 유사한 흐름이다. 다만, 소폭이나마 성장세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지역 인프라 개발과 주택 공급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매유통(소매무역) 역시 4.5% 증가해, 지역 내 소비 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로 서비스(개인 서비스)부문도 3.3% 성장했다. 이는 다게스탄 내 서비스업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을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 경제활동별 상품 및 서비스 생산지수는 5.1% 증가해, 전반적으로 경제 전 분야에서 안정적인 성장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다게스탄 경제가 러시아 내 타 지역에 비해 여전히 소득 수준이 낮고, 연방 보조금 의존도가 높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산업 다각화, 농업 현대화, 서비스업 성장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다게스탄이 북캅카스 연방관구 내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다게스탄은 경제적 자립성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8) 다게스탄 2023년 사회 경제 지표 <https://lezgigazet.ru/archives/375692>

V.사회

5.1 카프카스 지역의 종족집단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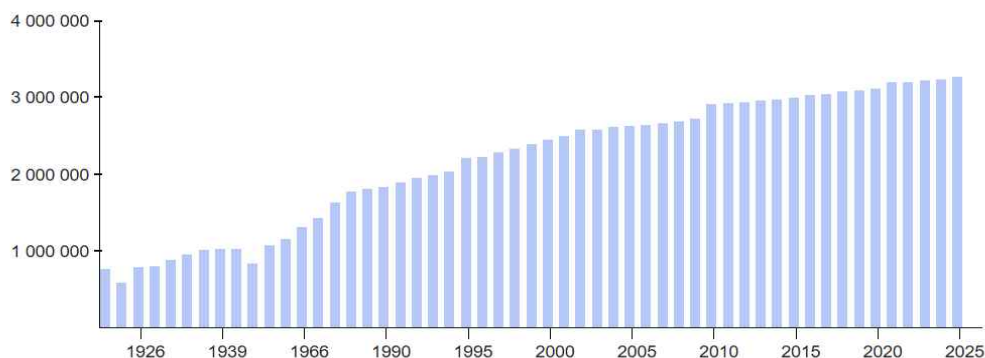
각각의 카프카스 종족집단(예: 아바르인, 다르긴인, 레즈긴인 등)은 전통적으로 부족, 씨족, 하부씨족, 그리고 촌락공동체로 구성된다. 농촌 사회의 기본 단위는 촌락공동체로, 이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씨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씨족은 다시 여러 하부씨족으로 세분화되며, 보통 하부씨족은 동일한 조상을 둔 약 100명 내외의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들 공동체 내에서는 연장자 협의회가 씨족과 하부씨족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중요한 분쟁이나 의사결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부집단에 대한 충성심은 종종 민족 전체에 대한 충성심보다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전통적 유대는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가 종족 간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할 때 연장자나 종교 지도자와의 협상을 중시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구조는 다게스탄 사회의 복잡성과 다층적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특징이다. 89)

5.2 인구 및 거주 현황⁹⁰⁾

다게스탄 공화국의 인구 추이는 1926년부터 2025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1926년에는 인구가 약 100만 명 이하로 시작했으나, 1930년대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는 200만 명을 돌파했고 1990년대 초에는 약 230만 명에 도달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도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010년에는 약 290만 명, 이후에는 약 300만 명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5년에는 약 320만 명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러시아 내에서 드물게 지속되고 있는 현상으로, 다게스탄은 높은 출산율과 젊은 인구 구조, 그리고 다양한 민족의 공존이 특징이다. 도시화율은 러시아 평균에 비해 낮은 편으로, 2018년 기준 도시 거주 인구는 약 45%에 불과하며, 나머지 55%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최근 수십 년간 인구 증가는 다소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러시아 연방 내에서는 인구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요약하면, 다게스탄 공화국은 20세기 초반 이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20년대 들어서도 인구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러시아 내 타 지역과 비교할 때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다게스탄의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잘 보여준다.



[그림38] 다게스탄 공화국 인구 증가 추이

89) 카프카스 민족 <https://w.wiki/Bw8T>

90) 다게스탄 인구 <https://w.wiki/ER2Z>

5.2 민족 구성 91)

2021년 기준 아바르인이 30,07%로 가장 많고, 두 번째로는 다르긴인 16.85%, 쿠미크인 15,60%가 뒤를 잇는다. 다음의 표는 2021년 기준 다게스탄 공화국의 인구 및 인종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 다게스탄 인종구성 (2021년 기준)

민족	명
아바르인	956,831 (30,07 %)
다르긴인	521,381 (16,38 %)
쿠미크인	496,455 (15,60 %)
레즈긴인	415,963 (13,07 %)
라크인	162,518 (5,51 %)
아제르바이잔인	116,907 (3,67 %)
러시아인	102,243 (3,21 %)
체첸인	99,320(3,12 %)
노가이인	36,944 (1,16 %)
아굴인	29,0253 (0,92 %)
루툴인	27,043 (0,85 %)
아르메니아인	3,274 (0,10%)
타타르인	2,473 (0,08%)
우크라이나인	580 (0,02%)
오세트인	521 (0,02%)
인구시인	256 (0,01%)

91) 다게스탄 인구 <https://w.wiki/ER2Z>

가. 아바르인

이들은 주로 다게스탄 남서부의 해발고도가 높은 산악지대에 밀집해 살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거의 아바르인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바르인들은 고유 언어인 아바르어를 사용하며, 스스로를 ‘산 사람들(마하롤족)’이라 부르기도 한다. 아바르인은 다르긴인 등과 함께 다게스탄의 정치·사회적 엘리트 집단을 형성하며, 국가의 주요 구조와 행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다게스탄 국경을 넘어 북부 아제르바이잔의 벨라칸(Belakan)지역에도 약 45,000명의 아바르인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아바르인’이라는 명칭은 실제로 안디족, 체즈족 등 15개에 달하는 소수 하위 민족 집단을 포괄하는 총칭으로 사용되며, 이들 사이에는 언어적 차이도 존재한다. ⁹²⁾



[그림39] 전통복장을 입은 아바르인⁹³⁾

나. 다르긴인

다르긴인은 다게스탄의 중심부에 거주하며, 아바르인, 라크인과 함께 다게스탄 국가구조를 대표하는 주요 종족이다. 이들은 다게스탄 내에서 두 번째로 큰 민족집단으로, 2021년 기준 인구는 약 16.38%에 달한다. 다르긴인은 전통적으로 북동카프카스어족에 속하는 다르기어를 사용하며, 오랜 기간 현재의 거주 지역에 정착해온 토착민족이다. 다르긴인 역시 아바르인과 함께 다게스탄의 정치·행정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⁹⁴⁾

다. 쿠미크인

쿠미크인은 다게스탄의 카스피해 연안 저지대와 쿠미크 평원에 주로 거주하는 투르크계 민족으로, 2021년 인구조사 기준 15.60%로 다게스탄 내 세 번째로 큰 민족집단이다. 쿠미크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지역의 농경과 목축, 상업에 종사하며, 과거에는 다게스탄 해안과 평야 지역의 지배적인 민족이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아바르인, 라크인, 다르긴인 등 산악 민족들의 대규모 이주와 정착이 이어지면서 쿠미크 지역의 전통적인 정착 형태가 변화했고, 농경지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쿠미크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영토와 문화적 정체성 보존을 위한 사회적·정치적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부는 자치권 확대와 민족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쿠미크어를 사용하는 이들은 다게스탄 내에서 튀르크계 문화를 대표하며, 오늘날에도 카스피해 연안 저지대의 주요 도시와 평야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⁹⁵⁾

92) 아바르인 <https://w.wiki/7Qoo>

93) 다게스탄 인구 <https://w.wiki/ER2Z>

94) 다르긴인 <https://w.wiki/7Qox>

95) 쿠미크인 <https://w.wiki/7Qpa>

라. 레즈긴인

레즈긴인은 다게스탄 남동부와 아제르바이잔 북동부에 걸쳐 거주하는 대표적인 코카서스 민족으로, 2021년 기준 다게스탄 내 인구의 13,07%이다. 이들은 주로 산악지대와 계곡, 농촌 마을에 분포하며, 대다수가 수니파 무슬림 신앙을 따른다. 레즈긴 사회는 전통적으로 씨족중심의 공동체 구조를 유지해왔으나, 최근에는 도시화와 현대와의 영향으로 이러한 전통적 결속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

소련 시기 인위적인 국경 설정과 분리 정책으로 인해, 현재 아제르바이잔 영토 내에도 상당수의 레즈긴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두 지역 레즈긴인들의 통합 요구가 제기되어 아제르바이잔 정부와의 긴장 요인이 되기도 한다.

레즈긴인들은 레즈긴어를 사용하며, 카스피해 연안과 산악지대에서 농업, 목축, 금속 세공, 직물 등 다양한 전통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레즈긴인은 다게스탄과 아제르바이잔 양국에 걸쳐 분포하며, 강한 지역 공동체 의식과 독자적 언어·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96)

마. 라크인

라크인은 전통적으로 산이 많은 코슈(Koshu) 지역을 중심으로 다게스탄 중부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코카서스계 민족이다. 2021년 기준 다게스탄 내 라크인 인구 전체의 5.51%로, 주요 민족 중 하나이다. 이들은 겨울철에는 북쪽의 스텝 지대와 마하치칼라 북쪽 지역을 목장으로 활용하는 유목적 전통도 일부 유지하고 있다. 라크인은 다게스탄 내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고, 세계적인 시각을 가진 민족으로 평가받으며, 이로 인해 가정에서도 라크어보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라크인들 사이에서 종족 정체성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97)

사. 노가이인⁹⁸⁾

노가이인은 금 호르드(Golden Horde)의 후예로, 투르크계 유목민족이다. 과거에는 다게스탄 북부와 스타브로폴 동부까지 포함하는 광대한 노가이 스텝 지역을 중심으로 살았으며, 이 지역은 한때 노가이인의 전통적 유목지였다. 최근 30년 동안 아바르인, 라크인, 다르긴인 등 산악 민족의 대규모 이주로 인해 노가이 스텝에는 다양한 민족이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통적인 유목 생활과 공동체 질서가 변화했다.

노가이인들은 이동이 가능한 집(유르트)에서 생활하며, 스텝을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전통적 유목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이주자들과의 토지·목초지 이용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노가이인들의 정체성과 생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림40] 전통복장을 입은 노가이인

96) 레즈긴인 <https://w.wiki/7QpV>

97) 라크인 [https://w.wiki/ER2\\$](https://w.wiki/ER2$)

98) 노가이인 <https://w.wiki/ER2w>

5.4 교육

대학교 현황

1) 다게스탄 국립대학교(Dagestan State University, ДГУ)⁹⁹⁾



Дагест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그림41] ДГУ 로고

[그림42] ДГУ 본관

다게스탄 국립대학교는 1931년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현재의 형태로는 1957년에 재조직되어 러시아 북카프카스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종합대학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학은 다게스탄의 수도인 마하치칼라에 위치해 있으며,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역사, 외국어, 아랍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포괄하는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운영한다.

대학의 목표는 지역과 국가 발전에 필요한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석사 및 박사 과정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다게스탄 국립대학교는 러시아 연방 교육과학부 산하 공식 대학으로, 공식적으로 인가받은 고등교육 기관이다. 대학의 학술적 우수성과 연구 역량은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와 국제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99) 다게스탄 국립대학교 <https://dgu.ru/>

2) 다게스탄 국립기술대학교(Dagestan State Technical University, ДГТУ)¹⁰⁰⁾



[그림43] ДГТУ 로고



[그림44] ДГТУ 본관

다게스탄 국립기술대학교는 1972년에 설립된 공학 및 기술 분야의 대표적인 국립대학으로, 마하치칼라에 위치해 있다. 대학은 남러시아 지역의 중요한 교육, 과학, 문화 중심지로 평가받으며, 혁신형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해 왔다

설립 이후 4만 명 이상의 전문가를 배출하였으며, 최근 자료에 따르면 5만 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한다. 대학은 기계공학, 계측공학, 건축, 토목, 기술, 정보 기술, 경제, 인문 등 다양한 전공을 제공하며, 16개 학부, 64개 학과, 4개 연구소(기본 연구소로 ‘열전소자 연구소’, ‘마이크로전자 및 나노기술 연구소’ 등), 21개 전문센터(북카프카스 지역 최대의 현대정보기술센터, 국제학술과학센터,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대리점인 Softline과 협력, Analog Devices Inc.와 공동 설립한 현대전자소자 및 기술센터 등)를 보유하고 있다.

대학은 러시아 연방 교육과학부의 공식 인가를 받았으며, 59개 전공, 40개 석사 과정, 49개 학사과정을 운영한다.

스포츠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으며, 축구장, 피트니스 센터, 여름 스포츠장 그리고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한 체육·휴양 캠프 ‘폴리테크닉’이 있다. 대학에는 카스피스크, 키즐랴르, 데르벤드 등 3곳에 분교가 있으며, ‘생산 및 취업 연계센터’, ‘기술 습득 및 재교육센터’ 등 다양한 부서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12개 학부, 5개 연구소, 19개 전문센터, 49개 학사, 40개 석사, 11개 전문가, 24개 대학원 과정 등으로 구조가 더욱 확장되었으며, 5,000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은 혁신적이고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목표로 하며, 지역 산업과의 긴밀한 협력, 국제 교류, 연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100) 다게스탄 국립기술대학교 <https://dstu.ru/>

3) 다게스탄 국립의과대학교(Dagestan State Medical University, ДГМУ)¹⁰¹⁾



[그림45] ДГМУ 로고



[그림46] ДГМУ 본관

다게스탄 국립의과대학은 1932년에 설립된 러시아 다게스탄 공화국 마하치칼라에 위치한 공식적인 국립 의과대학이다. 이 대학은 러시아 연방 보건부 산하에 있으며, 의학, 치의학, 약학, 간호학, 조산사 등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은 총 5개의 주요 학과 및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의학 과정은 6년제로, 임상의학,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 다양한 전공을 포함한다. 둘째, 치의학 과정은 5년제로, 치과 의학 전반과 임상실습이 이루어진다. 셋째, 약학 과정은 5년제로, 약물학, 약제학, 임상약학 등을 다룬다. 넷째, 간호학 과정은 4년제로, 간호실무 및 보건관리 교육이 이루어진다. 다섯째, 조산사 과정은 산과술 및 모성·신생아 건강관리 교육이 포함된다.

입학은 러시아 내외 학생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국제 학생도 일정 비율을 차지한다. 입학은 시험 및 서류 심사로 이루어진다.

러시아 전역뿐 아니라 해외(특히, 중동, 중앙아시아, 남아시아)등에서도 유학생이 유입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와 교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연구 및 임상실습 환경도 잘 갖추어져 있다. 다게스탄 국립의과대학은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 의학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임상 연구, 공중보건 연구, 약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대학 부속병원 및 지역 주요 병원과 연계하여 임상실습이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실제 진료 환경에서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다.

101) 다게스탄 국립의과대학교 <https://www.dgmu.ru/>

5.4 문화

5.4.1 종교¹⁰²⁾¹⁰³⁾

1) 이슬람의 사회적 영향력

다게스탄은 인구의 대다수가 이슬람을 믿는 지역으로, 종교는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약 83~95%가 이슬람 신자이며, 대부분은 수니파 무슬림이고, 남부 일부 종족은 시아파 계열에 속한다.

소련 시기에는 이슬람 종교 활동이 강력히 억압되었고 많은 사원이 폐쇄되었다. 특히 평야 지역과 도시의 모스크 거의 모두 파괴되었으나, 산악 지역에서는 모스크가 비교적 잘 보존되었고, 이슬람의 영향력도 도시보다 훨씬 강하게 유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다게스탄은 체첸과 함께 러시아 내에서 가장 강한 무슬림 성향을 보이는 지역으로 꼽힌다. 비무슬림 공동체는 러시아인이 유일하며 그 외 대부분의 민족은 무슬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전통 수피즘과 현대 이슬람 분열

다게스탄의 이슬람은 전통적으로 수피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수피즘은 형제애, 영적 지도나에 대한 존경, 공동체 결속을 중시하며, 이는 다게스탄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수피 신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종교 지도자의 무덤과 사당을 순례하는 전통 역시 활발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급진 이슬람 사조인 살라피즘/와하비즘이 확산되며 전통 수피즘과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이념적 대립은 종종 무장 충돌로 이어졌고 살라피스트 무장 단체의 등장은 러시아 연방 정부와의 충돌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이는 체첸 분리주의 운동, 무장 세력의 연계, 그리고 종교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을 포함한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수 기독교 및 유대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동시다발 테러, 살해, 협박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종교 간 갈등뿐 아니라 소수 종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낸다.¹⁰⁴⁾

3) 종족 연대 vs 이슬람 공동체

다게스탄에서는 흥미롭게도 이슬람 단결사상보다 종족 간 동맹이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슬람 종교 조직조차 민족 노선을 따라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다게스탄 특유의 다민족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

결국 종교는 민족 정체성과 분리되지 않으며, 각 종족 내부의 전통 권위 구조나 촌장 체제와 종교 권위가 뒤섞인 복합적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다게스탄의 정치 및 사회 질서 형성 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4) 이슬람 최고지도자의 사회·정치적 역할

최근 들어 이슬람 최고 종교지도자들은 종교 영역을 넘어서 사회 및 정치 영역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정부가 종종 '극단주의'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종교 활동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일반 무슬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102) 다게스탄 종교 <https://w.wiki/ER45>

103) 다게스탄 내 이슬람 <https://w.wiki/ER48>

104) 살라피즘의 확산 <https://w.wiki/ER4C>

는 지역 내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다.

5.4.2 전통문화

1) 줄타기(Канатохождение)

[그림47]전통 놀이 줄타기



다게스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줄타기 명인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 중 하나로, 줄타기는 단순한 곡예나 놀이를 넘어선 전통 문화이자 예술 형식으로 발전해왔다. 현지에서는 이를 ‘카나토흯치’라고 부르며, 민족의 용기와 균형 감각, 전통 춤이 결합된 복합적인 민속 예술로 간주한다.

이 줄타기 전통은 다게스탄 공화국의 작은 산악 마을인 쏘프크라 원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설에 따르면, 과거 이 마을의 젊은 남성들이 이웃 산비탈에 사는 여성들에게 구애하러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멀어 지루했던 탓에, 골짜기 사이에 밧줄을 걸어 보다 빠른 지름길로 삼았다고 한다. 그러나 단지 밧줄 위를 안전하게 건너는 데에 만족하지 못한 이들은 점차 그 위에서 걷고 춤을 추며 기술을 겨루기 시작했고, 이 활동은 점차 놀이로, 그리고 예술로 발전하였다. 줄타기는 곧 남성성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여성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구애 수단으로도 기능하게 되었다.

카나토흯치는 곡예적 요소뿐 아니라 민속적 상징성도 강하게 담고 있다. 보통 5~10미터 높이의 공중에 설치된 밧줄 위에서 안전망 없이 공연이 이루어지며, 단순한 걷기뿐 아니라 무기를 든 동작이나 전통 춤 동작이 함께 펼쳐진다. 이는 다게스탄 민족의 용기와 신체 감각, 미적 감각을 모두 보여주는 표현 형식으로, 줄 위에서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전통성과 자부심이 녹아 있다.¹⁰⁵⁾

105) 줄타기 <https://ria.ru/20220521/kanatokhodtsy-1789779173.html>

2) 전통 놀이 레즈긴카(Лезгинка)

남녀가 짝을 이루어 추는 춤으로 북카프카스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민속춤이다. 빠르고 박진감 넘치는 리듬을 갖는다. 결혼식이나 축제 등 다양한 행사에서 추며, 다게스탄 민족의 정체성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예술이다. 남성 혼자 하거나 남녀가 함께 추는 춤이 있다. 남녀가 서로 접촉하지 않고 추는 것이 다른 춤과 차별된다.¹⁰⁶⁾



[그림48]춤 레즈긴카 107)

5.4.3 공예

[그림49] 다게스탄 카펫108)



[그림50] 다게스탄 카펫109)



106) 레즈긴카 설명 <https://w.wiki/Bo7j>

107) 레즈긴카 사진 <https://ethnomir.ru/articles/tanets-lezginka/>

108) 다게스탄 공식 홈페이지 www.e-dag.ru (최종검색일 2016.06.13.)

109) 다게스탄 공식 홈페이지 www.e-dag.ru (최종검색일 2016.06.13.)

다게스탄 카펫트는 러시아 연방 내 북캅카스 지역, 특히 다게스탄 공화국에서 수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대표적인 전통 공예품이다. 이 지역은 30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는 다문화 사회로, 각 민족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이 카펫트의 문양과 색상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다게스탄 카펫트는 단순한 바닥재가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예술적 전통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는다. 카펫트는 주로 산악지대와 남부 지역(레즈긴족, 아바르족, 다르긴족 등 소수민족 거주지)에서 수공예로 만들어지며, 천연 양모, 면, 실크 등 현지 소재를 사용한다.

UNESCO는 북캅카스 지역의 전통 공예, 특히 카펫트 제작을 중요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유네스코 러시아 위원회 산하 무형문화유산보호위원장, 러시아 민속예술원장, 러시아 민족지 박물관장 등이 다게스탄 문화부 차관과 함께 관련 문화 정책 및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다게스탄 카펫트가 국제적으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유산임을 보여준다.

여러 학술 논문에서 다게스탄 카펫트의 역사와 제작 방식, 지역별 특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다게스탄이 7세기 이후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게 되면서 페르시아와의 교류가 활발해졌고, 페르시아 카펫의 제작 기법과 문양이 유입되었으나, 이후 다게스탄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발전하였음을 설명한다. 실제로 다게스탄 카펫트는 기하학적 무늬와 밝은 색상이 특징이며, 각 민족의 상징적 문양이 반영되어 있다.¹¹⁰⁾

110) CAUCASIAN CARPETS “GOLLU CHICHI”, “ZEYKHUR”, “TAPANCHA” (“PISTOL”)

나. 전통의상

[그림51] 다게스탄 전통의상¹¹¹⁾



다게스탄의 전통의상은 남녀 모두에게 독특하고 세련된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며, 특히 민족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민족마다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

남성은 주로 베슈멧 (Beshmet)이라고 불리는 긴 소매가 달린 조끼 형태의 옷을 입는데, 이는 속옷이 아니라 겉옷 바로 아래에 입는 중간 옷으로 허리 아래까지 내려온다. 그 위에는 헐렁한 셔츠를 입고, 넓은 바지를 착용한다. 이 바지는 무릎까지 올라오는 높은 부츠를 넣어 활동에 편리하도록 하며, 실제로 승마나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겉옷으로는 체르케스카(Cherkesska)라는 긴 코트를 입고, 허리에는 벨트를 두르며 그 위에 단검 등 무기를 착용하기도 한다. 추운 계절이나 산악지대에서는 소매 없는 모직 외투(Burka)와 털모자인 파파하(Papakha)를 함께 착용하는데, 파파하는 북캅카스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전통 모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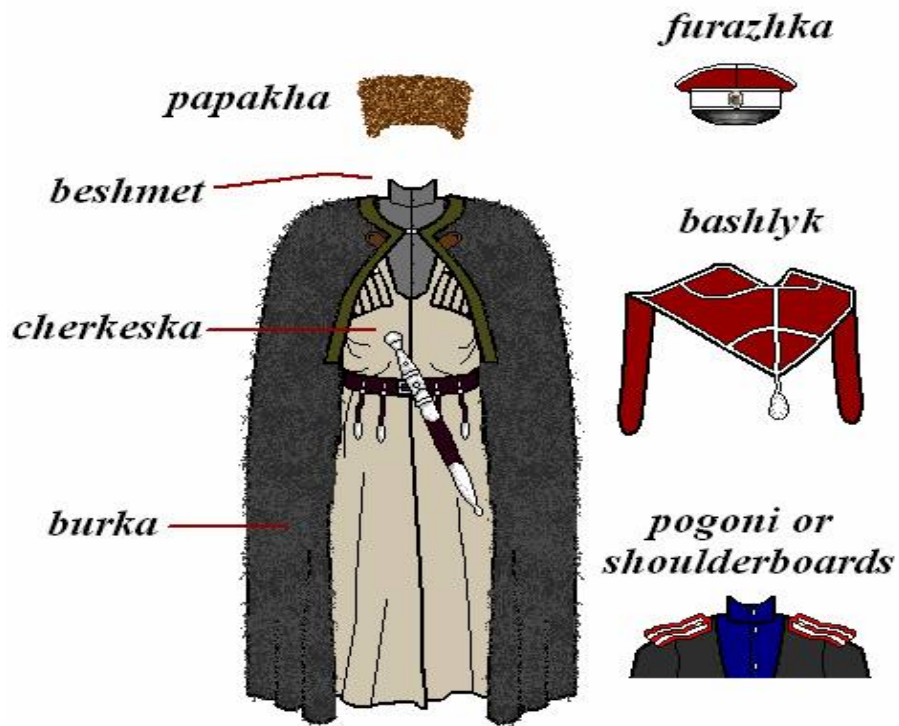
여성의 전통의상은 화려하게 수를 놓은 긴 드레스 또는 원피스가 중심이 되며, 다양한 생상과 문양으로 장식된다. 머리에는 추흐타(Chokhta)라는 특별한 머리 장식을 하고, 그 위에 스카프를 두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성들은 긴 치마나 넓은 바지(샤로바리, Sharovary)를 입기도 하며, 허리에 맞추어 입고 그 위에 술을 둘러 착용한다. 축제나 잔치 같은 특별한 날에는 아프간이나 페르시아 등 주변 문화의 영향을 받아 보석 등으로 화려하게 지장하는 경우가 많다.

다게스탄 내에는 아바르족, 레즈긴족, 다르긴족 등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고 있어, 각 민족마다 의상의 색상, 무늬, 장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레즈긴족 여성은 흰색 셔츠, 다양한 색상의 바지, 긴 원피스, 양털 양말, 가죽신 등을 착용하는 등 각 민족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존재한다. ¹¹²⁾

111) www.google.com (최종검색일 2016.06.13.)

112) 전통의상 설명 <https://blog.naver.com/baegwhabul/220634460389>

Some common terms



[그림52] 전통복장 각 명칭113)

5.4.4 관광 명소

1) 술락 협곡

[그림53] 술락협곡



술락 협곡은 다게스탄 공화국 중부에 위치한 유럽에서 가장 깊은 협곡으로, 공식적으로 협곡의 깊이는 최대 1,920m, 길이는 53km에 달한다. 이는 미국 그랜드 캐니언(1,857m)보다도 더 깊은 수치이다. 협곡은 술락 강이 오랜 세월 침식하여 만들어낸 자연의 경이로움으로, 협곡 벽면에는 백악기, 쥐라기, 제3기 지층이 드러나 있으며, 다양한 고생물 화석이 발견되는 지질학적으로 중요성을 지닌 곳이다.

협곡은 마하치칼라에서 약 100km 거리에 있으며, 주변에 두브키, 자부틀리, 노보-자부틀리 마을이 있다. 이곳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전망대와 보트 투어 출발지로, 마하치칼라 등 주요 도시에서 일일 투어 및 단체·개별 여행이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관광 프로그램에는 술락 강을 따라 보트로 협곡을 탐험하거나, 치르케이 수력발전소 전망대 방문 등으로 이루어진다.

술락 협곡은 희귀한 맹금류(그리폰 독수리, 검은 독수리 등)의 주요 서식지이자, 멸종 위기 식물의 보호구역이기도 하다. 이곳은 자연애호가, 사진작가, 하이커, 지질학자 등 다양한 방문객들에게 큰 매력을 주고 있고, 다게스탄을 대표하는 자연 관광 명소로 꼽힌다.¹¹⁴⁾

114) Сулакский каньон <https://w.wiki/CfUY>

2) 바라한 사리 쿨 (Бархан Сары-Кум)

[그림54] 바라한 사리 쿨



다게스탄 공화국에서 매우 독특한 자연 명소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단일 모래 언덕(사구)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사하라 사막의 대에르그 다음). 이곳은 마하치칼라에서 불과 18km 떨어진 쿨토르칼린스키(Kumtor-Kalinsky)구역, 나랏-튜베산맥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사구의 길이는 약 12km, 너비는 4km에 달하며, 높이는 250~350m(자료에 따라 다름)로 매우 웅장하다.

사리쿨은 “다게스탄의 사막”또는 “아시아 사막의 조각”이라 불릴 만큼 인상적인 모래 언덕으로, 실제 사막과는 300km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래가 쌓여 형성된 독특한 자연 현상이다. 바람의 영향을 받지만, 사구는 한 곳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사리쿨 사구에는 생태 탐방로와 정상 전망대가 조성되어 있어, 방문객들은 모래언덕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다. 정상에서는 주변 경치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며, 사구 기슭에는 자연사 박물관과 작은 동물원도 있다. 이곳은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이기도 하며, 특히 지중해 육지거북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리쿨 사구는 다게스탄 자연보호구역의 일부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자연을 사랑하는 여행객, 사진가, 연구자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이다. 115)

115) Сарыкум <https://w.wiki/BHpz>

3) Аул-призрак Гамсутль 유령 마을 감수틀

[그림55] Аул-призрак Гамсутль 감수틀



감수틀(Гамсутль)은 다게스탄 공화국 구니브스크 구역에 위치한 산 정상에 위치한 고대 마을로, 해발 약 1,400~1,700m에 자리하고 있다. 이 마을은 약 2,000년의 역사를 지닌 다게스탄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지 중 하나로, ‘다게스탄의 맞추픽추’라고도 불릴 만큼 독특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감수틀은 원래 아바르족이 세운 마을로, 이름은 ‘칸(한)의 요새 아래’ 또는 ‘왕의 요새’라는 뜻을 담고 있다. 마을은 산의 절벽에 밀착해 세워져 있으며, 집들은 바위를 벽으로 삼아 건축되었고, 좁은 골목과 다층 구조, 테라스와 아치형 출입구 등이 특징이다.

감수틀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기독교, 이슬람, 유대교)의 흔적이 남아 있는 문화적 교차점이기도 하며, 일부 집에는 다윗의 별(유대교 상징)이 새겨져 있기도 하다. 20세기 중반까지는 상점, 병원, 학교 등이 있는 활기찬 마을이었으나, 1960년대 이후 주민들이 점차 떠나기 시작했고, 2015년 마지막 거주자가 사망하면서 완전히 버려진 마을이 되었다. 오늘날 감수틀은 유일한 거주자가 없는 고스트 빌리지이지만, 신비로운 분위기와 장엄한 산악 경관 덕분에 전 세계 여행자와 사진가, 연구자들이 찾는 인기 관광지로 자리잡고 있다.

마을 입구에는 전망대가 있어 감수틀의 전체 모습을 조망할 수 있으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아 접근이 쉽지 않지만, 오토바이, 승마 또는 도보로 방문할 수 있다. 감수틀은 다게스탄 산악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오랜 역사와 독특한 건축, 그리고 신비로운 분위기로 인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이다. 116)

116) Гамсутль <https://w.wiki/7PVy>

VI. 다게스탄 주요 인물

이미지	설명
 <p data-bbox="258 958 614 1030">[그림56] 감자토프 라술 감자토프치</p>	<p data-bbox="633 371 1355 448">소련과 러시아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작가, 번역가, 공공 및 정치인이다.</p> <p data-bbox="633 456 1355 618">1923년 9월 8일 다게스탄 공화국(구 다게스탄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훈자크수키 지역의 자은 산악 마을 차다(Цада)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또한 저명한 시인이다.(가마자트 차다사 Гамзат Цадаса)</p> <p data-bbox="633 627 1355 958">라술 감자토프는 소련과 러시아 문학계에서 큰 명성을 얻었으며, 아바르어와 러시아어로 창작 활동을 하였다. 1939년 아바르족 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교사와 연극 연출 보조, 언론인, 라디오 편집자 등 다양한 직업을 거쳤다. 1943년 첫 시집을 출간했고 1945~1950년에는 모스크바의 고리키 문학연구소에서 수학했다. 1951년부터 2003년 사망할 때까지 다게스탄 작가연맹 위원장을 역임하며, 다게스탄 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p> <p data-bbox="633 967 1355 1214">대표작으로는 시집 『내 마음은 산에 있다』, 『높은 별들』, 『두 개의 숲』, 『두루미』 등이 있다. 라술 감자토프는 사회주의 노동영웅, 다게스탄 인민시인, 소련 국가상(스탈린상, 레닌상)등 의 영예를 받았으며, 다게스탄과 러시아 문학, 그리고 소련-러시아 사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 있다. 117)</p>
<p data-bbox="258 1193 614 1220">Гамзатов Расул Гамзатович</p>	
 <p data-bbox="258 1742 614 1859">[그림57] 시르바니 라마자노비치 찰라예프</p>	<p data-bbox="633 1375 1355 1576">소련과 러시아의 저명한 작곡가이자 음악 교사로, 1936년 11월 16일 다게스탄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현재 러시아 연방 다게스탄 공화국) 쿨린스키 지역 소재의 작은 산악 마을 호스레흐(Хосрех)에서 태어났다. 민족적 배경은 라크인 이다.</p> <p data-bbox="633 1585 1355 1836">찰라예프는 모스크바 국립 음악원에서 작곡을 전공하였다. 오페라, 발레, 여러 교향곡, 협주곡, 실내악 등을 작곡하였다. 특히, 다게스탄 공화국의 국가 작곡자로도 알려져 있다. 1986년에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았고, 1997년에는 러시아 연방 국가상, 2005년에는 러시아 정부 문화부문상을 수상했다. 118)</p>
<p data-bbox="258 1908 614 1968">Ширвани Рамазанович Чалаев</p>	

 <p>[그림58] 하비프 아브둘마나포비치 누르마고메도프</p>	<p>1988년 9월 20일 러시아 연방 다게스탄 공화국 산악 지역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종합격투기(MMA)선수이다. 고향은 다게스탄 내 산악 마을로, 이후 다게스탄의 수도이자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한 마하치칼라에서 성장했다. 누르마고메도프는 아바르족에 속하며, 무슬림 신앙을 가지고 있다. 2008년에 프로 무대에 데뷔한 이후 세계 최대 MMA단체인 UFC에서 라이트급(-70kg) 챔피언을 지냈고, 29전 29승의 무패 전적을 남겼다. 이외에도 레슬링, 컴뱃삼보, 유도, 주짓수 등 다양한 무술을 바탕으로 한 압박형 그래플링과 강력한 그라운드 킷으로 유명하며, UFC라이트급 역사상 최고의 파이터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0년 10월 아버지의 죽음 이후, 현역 은퇴를 선언했고, 이후 이글FC(러시아 MMA단체)공동회장, 지도자, 사업가 등으로 활동하며 주니어 파이터 육성에 힘쓰고 있다. 119)</p>
<p>Хабиб Нурмагомедов</p>	
 <p>[그림59] 빅토리아 이사코바</p> <p>Виктория Исакова</p>	<p>1976년 10월 12일 러시아 다게스탄 공화국의 하사뷰르트(Хасавюрт)에서 태어난 러시아의 유명 배우이다. 이사코바는 어린시절을 다게스탄에서 보냈으며, 이후 연극 배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모스크바로 이주했다. 빅토리아 이사코바는 러시아 연극 예술 아카데미(ГИТИС)에서 연기를 전공했으며, 모스크바 예술 극장 학교(МХАТ)에서도 공부했다. 졸업 후 모스크바의 여러 극장에서 연극 배우로 활약하며 실력을 쌓았고, 이후 영화와 드라마에도 출연하며 명성을 얻었다. 대표적인 영화 출연작으로는 <원 브레스>(2017, 마리나 역)가 있다. 이외에도 <The Island>, <Mirrors>가 있다. 2006년에는 남편 유리 모로즈의 영화 <토치카>에서 키라역을 맡아 시카고 국제 영화제 '올해의 여우 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120)</p>

117) 감자토프 라술 감자토프비치 <https://w.wiki/BnAU>

118) 시르바니 라마자노비치 찰라예프 <https://w.wiki/ER3W>

119) 하비프 아브둘마나포비치 누르마고메도프 <https://w.wiki/4zUr>

120) 빅토리아 이사코바 <https://w.wiki/AXPN>

VII. 한국과의 관계

7.1 한국전 강제 노역지



[그림60] 한국전쟁 강제노역지

다게스탄 공화국은 카스피해 서안에 위치한 러시아 연방 내 공화국으로, 험준한 산악 지형이 특징이다. 한국과의 직접적인 외교적, 경제적 교류는 활발하지 않으나, 양국 간의 관계는 한국전쟁(1950-1953) 이후 발생한 대한민국 국군 포로 및 납북자들의 강제 노역과 관련된 비극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중요한 접점을 가진다.

미국 국방부의 비밀 해제된 문서들과 미 육군 한국정보활동 연합사령부(CCRK)의 1953년 1월 5일자 첩보 보고서 #J-1720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북한은 대한민국 국군 포로와 민간인 납북자들을 포함한 약 2만 명의 인원을 구 소련으로 압송하여 강제 노역에 동원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952년 9월 중순 다게스탄 공화국에 위치한 카스피해 인근의 작은 도시 우라기(Uragi)로 이송되었으며, 이후 10월 초 러시아의 '우랄루 전력발전소'(Uralu Electric Power Station) 등으로 보내져 강제 노동을 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보고서는 북한이 서울을 점령했을 당시 납치한 민간인들과 약 6,000명으로 추정되는 국군 포로들이 이 강제 이송 인원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구 소련의 우랄 지역 뿐만 아니라 다게스탄 공화국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한국인들이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북한이 국군 포로를 우랄 지역 이외의 다른 수용소에도 대규모로 압송한 점을 감안하며, 소련으로 압송된 국군 포로의 실제 숫자는 수천 명이 아니라 수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한국전쟁의 아픔과 대한민국 국군 포로 및 납북자 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드러내며, 다게스탄 공화국이 한국인 강제 노역의 한 경유지 또는 종착지였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한국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¹²¹⁾

121) 2007.04.25.일자 "한국전쟁 국군포로·납북자 우랄지역서만 2만 명 노역", 한국일보, 신용일 기자

7.2 우리나라 기업 진출

작은 분쟁으로 해외 기업의 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다게스탄 공화국에 2000년 대한민국의 이동통신회사인 SKTelecom이 진출했다. 아래는 당시의 신문기사이다.

1) SK텔레콤의 다게스탄 이동통신 시장 진출(2000년 당시 상황)

2000년 12월 4일 동아일보 김기현 특파원의 보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그해 11월 29일 러시아 다게스탄자치공화국의 수도 마하치칼라에서 현지 이동통신사 다게스탄 이동통신(DCN)의 새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 행사는 히즈리 슈이흐사이드프 다게스탄 총리까지 참석할 정도로 현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SK텔레콤은 DCN에 주파수분할(AMPS)방식의 장비를 공급하고 설치하는 등 현물 투자를 통해 DCN 주식 49%를 인수했다. 당시 DCN의 가입자는 약 1,300여 명에 불과했으나, SK텔레콤의 투자를 통해 통화 품질을 개선하고 향후 5년 내 가입자가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기대하며 연간 100% 이상의 가입자 증가율을 예상했다. SK텔레콤 박학준 상무는 이번 투자가 약 1천만 달러 규모였지만, 내전 종식 후 지역 안정을 대비한 시장 선점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카프카스 지역은 이동전화 보급률이 1%에도 못 미치고 70%가 산악 지형이어서 시장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았다.

2) 당시 SK텔레콤의 다게스탄 진출의 배경과 의미

SK텔레콤의 다게스탄 투자는 2000년대 초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포화에 직면하여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던 SK텔레콤의 공격적인 글로벌 진출 전략의 일환이었다. 당시 SK텔레콤은 CDMA 기술의 해외 확산을 모색하는 한편, 러시아를 포함한 독립국가연합 지역과 같이 이동통신 인프라가 미비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에 대한 직접 투자 및 경영 참여를 통해 미래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다게스탄을 포함한 북캅카스 지역은 2차 체첸 전쟁의 여파 등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 처해 있었다. 폭탄 테러와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가 빈번했으며, 1998년에는 영국 브리티시텔레콤 소속 기술자 4명이 납치되어 살해되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높은 지정학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당시 SK텔레콤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고 신흥 시장을 개척하려는 강한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시 DCN의 아흐메드 자하로프 회장이 “한국인들은 이슬람 전사처럼 용감하다”고 언급한 것은 이러한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사업을 추진한 한국 기업인들에 대한 당시 현지인들의 인식을 반영한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높은 열의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달 29일 러시아 다게스탄자치공화국의 수도 마하치칼라 중심가에 위치한 다게스탄 이동통신(DCN) 본사. SK텔레콤이 제공한 주파수분할(AMPS)방식의 새 시스템 개통식이 현지의 히즈리 슈이흐사이드프 총리까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SK텔레콤은 이 회사에 AMPS방식의 장비를 공급하고 설치하는 등 현물 투자로 주식 49%를 인수했다. 이 지역 이동통신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DCN은 그동안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했으나 현재 가입자는 겨우 1300여명. 그러나 SK텔레콤의 투자로 보다 나은 통화 품질을 보장할 수 있어 매년 100% 이상 가입자가 늘어 5년 후면 가입자가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곳에는 폭탄 테러와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가 잦다. 98년 카프카스지역에 이동전화를 설치하려던 영국 브리티시텔레콤 소속 기술자4명이 납치돼 목이 잘린 시체로 발견되기도 했다. 현재 다게스탄의 유일한 외국인인 ‘카레예츠’로 불리는 한국인. DCN의 아흐메드 자하로프 회장은 “한국인들은 이슬람 전사처럼 용감하다”며 놀라워했다. 박학준SK텔레콤 상무는 이번 투자와 관련해 “1000만달러 규모에 지나지 않지만 내전이 끝나고 이 지역이 안정을 되찾을 때를 대비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프카스 지역은 현재 이동전화 보급률이 1%에도 못 미치는데다 70%가 산악지형이어서 시장의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평가다.

(2000. 12. 04) 김기현 특파원 동아일보¹²²⁾

122) “한국기업 포연뚝고 통신사업 '대시'”, 동아일보, 김기현 특파원

7.3 수력발전소 건설

2015년은 다게스탄 공화국과 한국 간의 경제 협력, 특히 수력 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한 논의가 진행된 시기였다. 러시아의 주요 수력 발전 회사인 루스기드로(РусГидро)는 다게스탄 공화국 내 수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했다.

2015년 9월 3일부터 5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 EEF)에서 루스기드로의 경영진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에 다게스탄 공화국 내 수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협력 관계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단순한 사업 제안을 넘어, 양사 간의 양해각서(MOU)체결을 통해 다게스탄 공화국의 수력 잠재력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수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당시 루스기드로는 다게스탄 공화국에 총 37개의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산악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K-water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야심찬 계획을 실현하고자 했다. 협정에는 양사가 다게스탄의 강에 대한 프로젝트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실무 그룹을 구성하고 활동을 조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다게스탄의 풍부한 수자원과 한국의 수력 발전 기술 및 운영 노하우를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¹²³⁾¹²⁴⁾

7.4 한국 다게스탄 공화국 교류 협력

2018년 9월 28일 'LG Electronics Inc'는 다게스탄 공화국 현지 무역 회사인 'ТД Киргу' (Trade House Kirgu)와 직접적인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CIS지역을 담당하는 LG전자 대표인 이일환 사장은 다게스탄을 방문하여 Киргу 경영진과 최종 소비자와 구매자 환경, 그리고 경쟁 환경에 대해 논의를 주고받았다. Киргу의 대표는 "LG와 우리 회사의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LG전자 제품은 훌륭하다"고 평가하며, "내년에도 우리 회사도 TV생산에 있어 주도권을 잡아 매출을 올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Киргу가 단순히 LG제품의 유통을 넘어 자체적인 생산 역량 강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LG와 Киргу SMS 오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다게스탄 내에서 LG제품의 유통을 책임져 왔으며, 이번 계약은 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¹²⁵⁾

2017년 한국은 다게스탄 공화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 활동을 펼치며 인도주의적 교류를 확대했다. 2017년 1월 30일자 러시아 언론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에 따르면, 남한에서 온 의료진이 다게스탄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국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의료 소외 지역에 도움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의료 지원 활동은 다게스탄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의료 기술과 인도주의적 정신이 다게스탄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양국 간의 교류 분야를 경제적 협력 외에 보건 및 인적 교류 분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¹²⁶⁾

123) <https://kavkaz.versia.ru/rusgidro-predlozhit-kompanii-iz-yuzhnoj-korei-postroit-gyes-v-dagestane> (최종검색일 2016.06.13.)

124) <https://www.finam.ru/publications/item/rusgidro-i-koreiyskaya-k-water-sozdatut-rabochuyu-gruppu-po-realizacii-sovmestnyx-proektov-v-rossii-i-koree-20150130-15179/>

125) LG전자 <https://lezgigazet.ru/archives/46725>

126) 의료 도움 https://dag.aif.ru/health/vrachi_iz_yuzhnoy_korei_okazyvayut_medicinskuyu_pomoshch_zhitelyam_dagesta

2017년은 다게스탄 공화국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는 중요한 행사가 개최된 해이다. 2017년 4월 27일자 러시아 언론 ‘РИА Дагестан’의 보도에 따르면, 다게스탄 공화국의 수도 마하치칼라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 문화 축제가 개최되었다. 이 축제는 다게스탄 공화국 청소년부의 후원 아래 2017년 4월 20일부터 마하치칼라 문화궁전(Palace of Culture in Makhachkala)에서 시작되었다. 축제 프로그램에는 한국 관련 상품이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 장터, 한류의 핵심 콘텐츠인 k-pop 댄스.노래 공연, 한국음식 코너 등 참가자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테스트가 마련되었다. 마하치칼라에서 처음으로 열렸던 한국문화축제는 다게스탄 주민들에게 한국의 현대적 문화와 전통 문화를 동시에 소개하며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127)

2019년, 한국과 다게스탄 공화국 간에는 학술 분야에서의 교류도 이루어졌다. 2019년 3월 25일자 러시아 언론 ‘РИА Дагестан’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서 온 김흥기 교수가 다게스탄 주립대학교(ДГУ)에서 정치경제학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김흥기 교수는 다게스탄 주립대학교 총장인 무르타잘리 라바다노프와 만남을 가졌다. 라바다노프 총장은 김흥기 씨에게 다게스탄 주립대학교의 역사와 지역 내 선도적인 대학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국제 협력 분야에서의 경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흥기 교수는 국제 관계, 특히 러시아와 한국 간의 관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며 강연을 진행했다. 이는 한국의 학자가 러시아 연방 내 특정 공화국의 대학을 방문하여 전문 분야 강연을 진행한 학술 교류의 중요한 사례로, 양국 간의 이해 증진과 학문적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128)

na
127) 한국문화 축제
https://riadagestan.com/news_en/society/dagestanis_to_get_familiarized_with_korean_culture/
128) 김흥기 교수 강연
https://riadagestan.ru/news/education/professor_kim_khyn_gi_iz_korei_prochital_v_dgu_lectsiyu_po_politekonomike/

참고문헌

다게스탄 공화국 정부 www.e-dag.ru

다게스탄 공화국 통계청 <http://dagstat.gks.ru>

다게스탄 공화국 법원 <http://www.nsr.ru/>

러시아 연방 기상청 <http://www.pogodaiklimat.ru/>

러시아 연방 통계청 <http://www.gks.ru>

러시아 연방 중앙 선거 관리부 <http://cikrf.ru>

<http://teatrain.ru/respublika-dagestan>

Travel association 'TRASA.RU'http://trasa.ru/region/astrahanskaya_geo.html

<https://05.mvd.ru/news/item/2250015/>

검색포털 Naver www.naver.com

검색포털 Google www.google.com

해외 산업정보 <http://www.kiet.go.kr>

한국 컴퓨터 선교회 www.kcm.kr

다게스탄 공화국 정보 에이전시 <http://eng.riadagestan.ru>

해외 코트라 뉴스 <http://news.kotra.or.kr/kotranews/index.do>

러시아 지역별 투자 <https://www.investinregions.ru/en/regions/dagestan/industries/>